기본과제 2020-24

관광동향 변화에 따른 도내 축제활성화 방향

정 연 정 수석연구위원

CRI 2020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제Ⅰ장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내용 ····· 3

제Ⅱ장 관광환경 및 동향 변화 ····· 4

1. 관광환경 변화 ····· 4
2. 관광동향 변화 ····· 6
3. 문화관광축제 정책 동향 ····· 7
4. 시사점 ····· 20

제Ⅲ장 코비드-19와 축제 ····· 22

1. 코비드-19 이후의 관광환경 변화 ····· 22
2.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 24
3. 도내 축제 현황 ····· 28
4. 시사점 ····· 51

제Ⅴ장 결론에 대신하여 ····· 53

1. 여건분석(SWOT) ····· 53
2. 목표 및 전략 ····· 54
3. 정책적 함의 ····· 55

참고문헌 ····· 57

표 차례

〈표 Ⅱ-1〉 간접지원 형태 ····· 13
〈표 Ⅱ-2〉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35개) ····· 15
〈표 Ⅱ-3〉 2020-2021년 예비 문화관광축제(33개) ····· 16
〈표 Ⅱ-4〉 제도개선 추진경과 ····· 17
〈표 Ⅲ-1〉 개최 축제수비교 (전국/충북) ····· 28
〈표 Ⅲ-2〉 도내 시군별 축제 개최 비중 ····· 29
〈표 Ⅲ-3〉 축제종류별 분포 ····· 30
〈표 Ⅲ-4〉 지역별 축제종류 분포 ····· 30
〈표 Ⅲ-5〉 충북 권역별 축제 개최기간 비교(2019년) ····· 32
〈표 Ⅲ-6〉 충북 권역별 축제 개최횟수 비교(2019년) ····· 35
〈표 Ⅲ-7〉 충북 권역별 축제예산 비교(2019년) ····· 38
〈표 Ⅲ-8〉 충북 권역별 축제종류 비교(2019년) ····· 41
〈표 Ⅲ-9〉 충북 권역별 축제 위탁운영 여부 비교(2019년) ····· 44
〈표 Ⅲ-10〉 1~6월 개최 계획에 대한 현황 조사(5.4 기준) ····· 47
〈표 Ⅲ-11〉 2020년 지역축제 현황(10.16 기준) ····· 48
〈표 Ⅲ-12〉 2020년 충청북도 축제 개최여부 현황 ····· 49

그림 차례

〈그림 Ⅲ-1〉 시군별 축제 개최기간 비교 ····· 33
〈그림 Ⅲ-2〉 권역별 축제 개최기간 비교 ····· 33
〈그림 Ⅲ-3〉 시군별 축제 개최횟수 비교 ····· 36
〈그림 Ⅲ-4〉 권역별 축제 개최횟수 비교 ····· 36
〈그림 Ⅲ-5〉 시군별 축제예산 비교 ····· 39
〈그림 Ⅲ-6〉 권역별 축제예산 비교 ····· 39
〈그림 Ⅲ-7〉 시군별 축제종류 비교 ····· 42
〈그림 Ⅲ-8〉 권역별 축제종류 비교 ····· 42
〈그림 Ⅲ-9〉 시군별 축제 위탁운영 여부 비교 ····· 45
〈그림 Ⅲ-10〉 권역별 축제 위탁운영 여부 비교 ····· 45

제Ⅰ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문화체육관광부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축제[1] 중 우수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일정한 평가시스템을 거쳐 선별적, 차등적 방식으로 지원해 옴

○ 1949년 개천예술제 이후 1990년 초기에 이르기까지 개최되는 축제의 수는 240여개에 불과하였으나, 특히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지역의 홍보와 치적 알림에 축제가 적극 활용됨에 따라 축제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가히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됨

○ 하지만 지역통합, 지역정체성 확립, 일정 부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점차 외래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일회성 소모적인 행사가 되어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짐

○ 2020년 들어 축제정책의 기본방향 변화하고 있는데[2] 그 배경을 보면,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축제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음

1) 일정기간(3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특산물축제·문화예술제·일반축제 등을 포함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를 말함
2) 관광진흥법 시행령(2019년 4월) 및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계획(2019년 11월)

- 기존방식 :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 등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등급에 따라 예산 규모를 차등적으로 지원함(1년간, 축제당 최대 2억 7천만원 ~ 7천만원)
- 개선방안 : 기존의 문화관광축제의 등급 구분을 없애고, 예산은 2년간, 축제당 6천만원 이내에서 균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 지금까지의 지역축제는 대체로 개최비용의 대부분을 관지원에 의존[3], 사후평가에 의한 등급 매기기, 내방객수에 기초한 경제적 효과 측정 등으로 인해 방문객 수 증대에 매진하다 보니 대부분의 축제가 비슷비슷한 이벤트성으로 흐르고 있어 낭비성 축제예산 남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 도내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축제도 일반적인 지역축제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바, 충북의 경우는 문화체육부가 주관하여 추진해 온 문화관광축제 선정에서도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충청북도에서는 2007년부터 각 개별 시군에서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축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매겨진 순위에 근거해 최우수(1개), 우수(2개), 유망(3개) 등급의 총 6개 축제를 선정한 후 정해진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한편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의 일종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즉 COVID-19는 축제는 물론 관광환경 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현재 COVID-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증대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따른 코로나 불루는 물론, COVID-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따라서 COVID-19 이후 관광양태의 변화 및 축제의 향방과 대응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한국의 문화관광축제는 전체 예산의 85.2%를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유명 해외축제의 경우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비용의 60% 이상을 자체조달하고 있다. (김덕기, 국회정책토론회, 2018.11.14.)

2. 연구목적

○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현황 및 한계점 파악

○ 다양한 액티비티, SNS활용, 맛집 탐방, 근거리에서 일상처럼 펼쳐지는 여행, 베이비붐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까지 계층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관광성향 등 최근 관광트랜드에 따른 축제 활성화방안 도출

○ COVID-19 이후 축제의 대응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 필요

○ 문화관광축제의 충청북도 비중을 늘리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3. 연구내용

○ 관광환경 및 관광동향 변화

○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한계, 평가제도

○ 코비드-19 이후의 관광환경 변화

○ 코비드-19 이전과 이후의 축제 양상

○ 지역대표축제 양성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법

제Ⅱ장
관광환경 및 동향 변화

1. 관광환경 변화[4)]

○ 절대인구 및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사회 현상에 따라 실버세대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음

○ 소비 성향 또한 세대간 변화하고 있는데, 주 소비층이 베이비부머 및 X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로 이전하고 있음

○ 행복과 자기만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경우, '자기 중심적 소비', '소비의 디지털화', 다양한 가치 기준에 따른 '가치소비'의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SNS 및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한 세대라는 특성을 지님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체감경기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전반적인 관광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청년층은 소유 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에 따른 가성비 높은 일상화된 여행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4)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내 2019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0.8), 국민여행조사보고서(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용에서 발췌함

○ 한편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난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관광에 있어서 안전 및 관광위기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2019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늘어난 여가시간을 소비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 인식이 확산되면서 직장인들의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이는 단기 근거리 여행 분야가 점차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미·중, 한·중, 한·일, 한·미 등 주변국들간의 경색된 관계로 인한 인·아웃바운드 관광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2. 관광동향 변화

○ 만 15세 이상 국민중 92.4%가 여행 경험을 하고 있으며, 1인 평균 연 7.6회, 12.9일 여행에 대략 97만 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행 전 방문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볼 거리, 여행지의 지명도, 이동거리 등을 들고 있으며, 관련 여행정보는 주변인, 과거 방문 경험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행중 동반자 유형을 보면 가족, 친구/연인과 함께 평균 4.3명을 동반하고 있으며, 여행지에서의 활동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 휴식/휴양, 음식관광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대비 자연/풍경 여행은 6.2%p 증가한 반면, 지역 맛집을 찾는 음식관광은 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여행지에서의 소비행태를 보면 음식점에서 지출하는 비용, 교통비, 쇼핑비, 숙박비의 순서을 보임

○ 가구원수별 국내여행 경험률은 2인 가구가 1인 가구나 3인 이상 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 연령대별 국내여행 경험률은 15-1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40대가 높은 수치를 보임

○ 국내 가족여행의 경우 1회 평균 여행 일수는 1.8일로 주로 1박2일 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행 지출액도 141천원으로 국내여행 전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한편 가족여행의 경우 자가용을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시설 이용 정도는 펜션, 가족/친지집, 콘도미니엄/리조트, 호텔의 순을 보이고 있음

○ 세대별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를 세대별로 보면, X세대(1965-1983), 밀레니얼 세대(1984-2000),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4), 시니어 세대(1954년 이전)의 순을 보이고 있음

3. 문화관광축제 정책 동향

1) 문화관광축제 추이

○ 문화관광축제는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정해진 일자에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준비, 개최되는 축제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삶과 전통문화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 있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근간으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향토축제로서, 주제에 따라 넓게는 전통문화축제, 생태자연축제, 주민화합축제, 지역특산물축제 등이 포함됨

○ 문화관광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많은 축제중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199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축제 등 4등급으로 나누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축제 비용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방문객 수,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주로 축제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평가시스템에 맞추어 많은 축제가 획일화, 서열화 되는 측면이 나타나게 되었음

○ 1996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 예산규모로 볼 때, 2010년 72억5천만원을 정점으로 이후 그 규모가 줄어 들게 되어 2019년 42억 2천5백만원이 될 때까지 점차 추세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0년부터는 그간의 등급제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균등지원하되 점차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해 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문화관광축제 지원 추이(1996~2019)

연도	신청수	국비지원	등급명칭 및 축제수(지원액: 백만원)					비고
1996	8	한국관광공사	등급명칭 없음	1(60),1(50),1(35),2(30),1(24),1(14),1(8)				첫도입
1997	10			2종류로 나누어 차등지원 2(50),8(30)				
1998	18	350		예산의 원천: 국비 5(70),한국관광공사 13(24)				
1999	21	360		예산의 원천: 국비 6(60),한국관광공사 15(24)				평가제 도입
2000	25	1,580	인센티브	집중육성	지역육성			등급제 도입, 차등지원
			4(140)	6(70)	15(40)			
2001	30	1,850	5(100)	5(70)	20(50)			
2002	29	1,650	최우수	우수	지역육성			
			3(100)	19(60)	7(30)			
2003	30	1,840	최우수	우수	지역육성	예비		
			3(130)	10(80)	10(50)	7(없음)		
2004	37	2,160	3(200)	9(100)	11(60)	14(없음)		
2005	45	2,528	최우수	우수	지역육성	유망	예비	
			3(250)	7(130)	8(60)	9(40)	18(없음)	
2006	52	3,500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5(300)	9(150)	13(50)	25(없음)		
2007	52	3,500	7(250)	9(100)	17(50)	19(없음)		
2008	56	7,170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2(800)	7(300)	10(150)	17(70)	20(30)	
2009	57	7,000	2(800)	8(300)	9(150)	17(70)	21(30)	
2010	44	7,250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급한도제 도입 차등지원
			2(800)	8(300)	10(150)	24(70)		
2011	44	6,700	2(800)	8(300)	10(150)	24(50)		
2012	45	6,700	2(800)	8(300)	10(150)	23(40)		
2013	42	6,700	2(600)	8(300)	10(150)	22(76)		
2014	40	6,900	2(500)	8(250)	10(130)	20(89)		
2015	44	6,924	2(500)	8(250)	10(150)	23(99)		
2016	43	6,000	3(450)	7(220)	10(130)	23(84)		
2017	41	5,804	3(400)	7(220)	10(130)	21(84)		
2018	41	5,039	3(320)	7(200)	10(110)	21(80)		
2019	41	4,225	3(300)	7(200)	10(100)	21(70)		

참고: 오훈성, 문화관광축제의 현황과 정책방향 및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을 참조하여 2018·2019 재구성함

○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문화관광축제 지정현황을 보면, 괴산고추축제(2017·2018·2019), 음성품바축제(2018·2019) 등 총 2종이 5회에 걸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될만한 지역 축제를 양성하고, 새로운 축제를 특성화하여 발전시키는 유기적인 축제추진 체제 확립이 절실함

■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2017~2019)

구분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서울 1종 1회				1종 1회
	-	-	-	한성백제문화제(17)
부산 2종 3회				2종 3회
	-	-	-	광안리어방축제(17·18) 동래읍성역사축제(18)
대구 1종 3회				1종 3회
	-	-	-	대구약령시한방축제(17·18·19)
인천 1종 2회				1종 2회
	-	-	-	인천펜타포트축제(17·18)
광주 1종 3회		1종 1회	1종 2회	
	-	추억의 충장축제(19)	추억의 충장축제(17·18)	
대전 1종 2회				1종 2회
	-	-	-	대전효문화뿌리축제(17·18)
울산 1종 1회				1종 1회
	-	-	-	울산옹기축제(17)
경기 6종 16회	1종 1회	3종 5회	3종 4회	3종 6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18)	이천쌀문화축제(17·18·19)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17)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19)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17·18) 수원화성문화제(19) 시흥갯골축제(19)	여주오곡나루축제(18·19) 수원화성문화제(17·18) 시흥갯골축제(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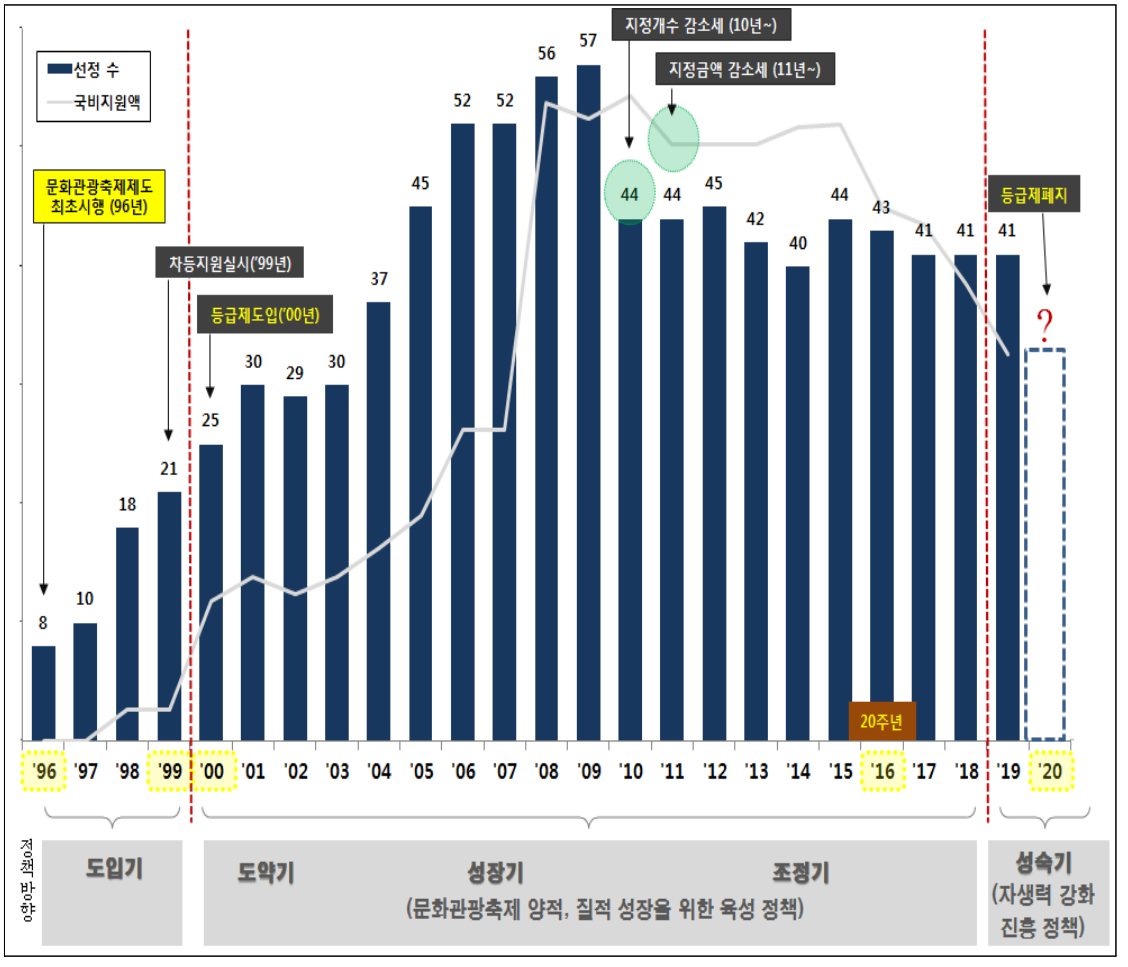
구분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
강원 6종 13회	1종 2회	1종 1회	3종 6회	3종 4회
	화천산천어축제(17·18)	평창효석문화제(18)	평창효석문화제(17·19)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17·18·19) 춘천마임축제(19)	춘천마임축제(17·18) 정선아리랑제(17) 강릉커피축제(17)
충북 2종 5회				2종 5회
	-	-	-	괴산고추축제(17·18·19) 음성품바축제(18·19)
충남 4종 9회			2종 4회	4종 5회
	-	-	강경젓갈축제(17·18) 부여서동연꽃축제(17·18)	한산모시문화제(18) 해미읍성축제(17·18) 강경젓갈축제(19) 부여서동연꽃축제(19)
전북 6종 15회	2종 3회	1종 1회	1종 1회	4종 10회
	김제지평선축제(17) 무주반딧불축제(18·19)	무주반딧불축제(17)	임실N치즈축제(19)	완주와일드푸드축제(17·18·19) 고창모양성제(17·18·19) 순창장류축제(17·18·19) 임실N치즈축제(18)
전남 7종 19회		4종 9회	3종 5회	3종 5회
	-	강진청자축제(17·18)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17·18·19) 담양대나무축제(17·18·19) 보성다향대축제(19)	정남진장흥물축제(17·18·19) 보성다향대축제(18) 강진청자축제(19)	보성다향대축제(17) 목포항구축제(18) 영암왕인문화축제(17·18·19)
경북 4종 10회	1종 2회	1종 1회	1종 3회	2종 4회
	문경전통찻사발축제(17·19)	문경전통찻사발축제(18)	봉화은어축제(17·18·19)	포항불빛축제(17) 고령대가야체험축제(17·18·19)
경남 3종 9회	1종 1회	1종 2회	1종 3회	1종 3회
	산청한방약초축제(19)	산청한방약초축제(17·18)	통영한산대첩축제(17·18·19)	밀양아리랑대축제(17·18·19)
제주 1종 3회		1종 1회	1종 2회	
	-	제주들불축제(19)	제주들불축제(17·18)	-
계 47종 114회	**6종 9회**	**13종 21회**	**16종 30회**	**29종 54회**

※축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최근 선정 시점의 명칭으로 정리

2) 성과 및 한계

○ 문화관광축제는 24년 동안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 관광정책으로서, 효율적 정책 실행을 통해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 등 큰 성과를 달성함

- 초기 도입단계('96~'99), 육성 단계('00~'18)를 거쳐 문화관광축제의 양적, 질적 성장 도모[5)]



5) '98년-'16년 대비 (축제 방문객수 2.8배↑) 총 550만명→1,547만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3.4배↑) 축제당 49억원→167억원 ('18.6월, 문화관광연구원 분석)

- 비교적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파급효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축제화 기제 마련, 새로운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창출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토양 복원, 지방으로 관광 분산 유도, 관광 비수기 극복, 지역 축제개발 활성

- 육성 지원을 통해 보령머드, 안동국제탈춤, 진주남강유등, 김제지평선, 화천산천어 등 대표할 만한 축제의 성장 기반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지역 관광 등 지역 활성화의 효율적 수단으로서 문화관광축제 등 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됨

○ 축제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다소 미흡하고, 대내외 인지도 부족 및 자생력을 갖춘 축제로의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

-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심의시 대표 프로그램 차별성, 지역 특색 문화관광 자원 활용성 등 평가항목을 강화함으로써 문화관광축제 콘텐츠의 특성화, 차별화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 연간 880여개의 지역 축제 획일화된 콘텐츠, 공간 등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나타남

- 한편, 장기적 지원을 받고도 국비, 시도비 직접지원이 종료된 후 재정적 어려움, 축제 인지도 및 위상 저하 등으로 인한 축제의 자생력 기반 확보에 실패

○ 이에 2020년을 문화관광축제 정책 및 지원제도 전환점으로 삼아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축제 지원체계 혁신 등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지원방식 또한 지자체 등 축제운영 주체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국비를 지원하던 것을 2019년부터 컨설팅, 홍보지원, 축제인력 양성 등 간접지원 형태로 점차 전환, 확대하는 추세

구분(단위 : 억원)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안)
문화관광축제지원(직접지원)	69	63	59	56	50	42	20
축제 경쟁력 강화 및 세계적 축제 육성(간접지원)	-	-	-	-	-	13	30

〈표 Ⅱ-1〉 간접지원 형태

유형 구분	주요내용
컨설팅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축제 진단, 축제운영주체의 수요에 따른 전문가·업체의 심층 컨설팅, 지원사업 유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축제 관광상품 개발	축제 방한상품 개발, 기념품(머천다이징, MD) 등 상품 개발*, 지역관광 및 유관 산업과 연계한 축제 여행상품 개발** 등 * (1단계) 사전조사(리서치) (2단계) 시제품 개발, 시험 (3단계) 상품판매 등 단계별 지원 **축제와 공연, 식음료, 문화재(문화유산), 지역 관광자원 등 결합 관광상품
축제 수용태세 개선	축제 안내 및 홍보물 등 안내·홍보체계 개선, 기자재 재활용·공동 활용, 축제 셔틀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방문객 집계 및 결제시스템 도입 등
축제 홍보 마케팅	국내외 관광마켓·박람회 참가 지원(축제상품 홍보 및 판매), 해외 유력인사·영향력자 등 팸투어,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축제 빅데이터 분석	방문객수(통신사 데이터), 소비지출(카드사 데이터) 관련 기간별, 시기별, 연령대별 등 추이 분석 및 축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 제공
축제관련 연구개발(R&D)	공간배치, 방문객 동선 등 개선 연구, 축제 조명·디자인 연구 등

3) 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

○ 2020년 새로운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문화관광축제는 명예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예비 문화관광축제의 3부분으로 나뉘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

○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축제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로서 축제 전담조직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선정됨

○ 이는 그간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에 기반을 두고 크게 성장한 문화관광축제가 일몰 축제가 된 이후, 재정지원 감소, 축제 홍보 애로, 축제 인지도 및 위상 저하 등으로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임

○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축제 전담조직을 통해 지원하게 되며, 홍보마케팅, 심층 컨설팅, 관광수용태세 개선, 관광상품개발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취하게 됨

○ 2020~2021 명예 문화관광축제에는 무주 반딧불축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문경 찻사방축제, 금산 인삼축제, 천안 흥타령축제,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와 함께 영동 난계국악축제가 선정됨[6)]

○ 직접적으로 국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축제 기획 및 개최, 운영 관리, 집행 전반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화관광축제의 단계중 성장단계의 축제를 의미함

○ 문화관광축제는 등급없이 2년을 주기로 30개 내외에서 지정되고 있음

○ 충북은, 2019년 전국 유망축제 21개중에 포함된 음성품바축제, 괴산고추축제 2개 중에서,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 35개중 유일하게 음성품바축제 1개가 선정되었음

○ 이는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임

6) 기존의 글러벌 축제 5개, 즉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김제지평선축제, 화천산천어축제는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구분함

〈표 Ⅱ-2〉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35개)

구 분	축제명
부산(1개)	광안리어방축제
대구(2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인천(1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광주(1개)	추억의충장축제
울산(1개)	울산옹기축제
경기(5개)	연천구석기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7개)	평창송어축제, 춘천마임축제, 평창효석문화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강릉커피축제, 정선아리랑제, 횡성한우축제
충북(1개)	음성품바축제
충남(2개)	한산모시문화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전북(3개)	임실N치즈축제, 진안홍삼축제, 순창장류축제
전남(4개)	영암왕인문화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경북(3개)	포항국제불빛축제, 봉화은어축제, 청송사과축제
경남(3개)	밀양아리랑대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제주(1개)	제주들불축제

○ 예비 문화관광축제는 향후 성장 단계의 문화관광축제로 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예전의 예비 등급이나 육성축제의 단계와 비슷한 형태로서, 컨설팅, 현장평가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축제 전반에 걸친 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축제 단계임

○ 선정 절차는 광역 시도에서 문체부에 추천한 축제 중 행정 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 제고가 예상되는 축제 중에서 2년을 주기로 30개 내외를 지정토록 함

○ 예비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전국 33개 축제중 충북은 옥천 지용제와 괴산 고추축제 등 2개가 지정되었음

〈표 II-3〉 2020-2021년 예비 문화관광축제(33개)

구 분	축제명
서울(2개)	한성백제문화제, 관악강감찬축제
부산(2개)	영도다리축제, 동래읍성축제
대구(2개)	금호강바람소리길축제, 수성못페스티벌
인천(2개)	부평풍물대축제, 소래포구축제
광주(2개)	광주세계김치축제, 영산강서창들녘억새축제
대전(2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2개)	울산쇠부리축제, 울산고래축제
세종(1개)	세종축제
경기(2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강원(2개)	원주한지문화제, 태백산눈축제
충북(2개)	지용제, 괴산고추축제
충남(2개)	강경젓갈축제, 석장리세계구석기축제
전북(2개)	부안마실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전남(2개)	목포항구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경북(2개)	영덕대게축제, 고령대가야축제
경남(2개)	알프스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제주(2개)	탐라국입춘굿, 탐라문화제

4) 평가제도 개선[7)]

(1) 제도개선 배경

○ 1996년 도입된 문화관광축제는 도입단계, 육성단계를 거쳐 양적 성장을 크게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 자생력을 기반으로 한 축제의 질적인 성장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자성의 나타남

○ 중앙정부의 축제 지원정책이 직접적인 국비 보조의 형태에서 점차 홍보지원, 축제 전문인력 양성 등 간접 지원의 비중이 2019년부터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즉 평가후 등급제에 기반한 차등지원방식에서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지정제 방식하에서 관광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빅데이타 분석 및 축제와 관련된 연구개발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2020년부터 전환하게 되었음

〈표 Ⅱ-4〉 제도개선 추진경과

일 시	내 용
2017.11 ~ 2018.6	문화관광축제 제도개선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1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19.4.9.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9. 8~10	축제 관련 전문가 현장 의견수렴
2019. 10	축제지원제도 개선(안) 지자체 설명회
2019.10~11	심사평가체계 개편 전문가 회의
2019.11	축제 전문인력양성 관련 T/F 회의

7)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2019.11)

(2) 개선 내용

① 단계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예비 단계(발굴) - 예비 문화관광축제 (2년 주기로 30개 내외 지정)

○ 직접재정지원 단계(성장) - 문화관광축제 (등급 없이 2년 주기로 30개 내외 지정)

구분	주요 개선사항	
	현행	개선
문화관광축제 지정	• 4등급제(대표·최우수·우수·유망) • 매년 선정 – 차년도 지원대상 축제를 전년도말 선정	• 축제 등급 없음 • 2년 주기 지정 – 19년말 지정 → 20~21년 문화관광축제 21년말 지정 → 22~23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규모	• 문화관광축제 41개 – 등급별 차등지원, 최대 270백만원 ~ 최소 70백만원	• 문화관광축제 30개 내외 지정 – 등급 없이 균등지원, 60백만원 내외 예상

○ 후속 지원단계 -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기존 글로벌축제 5개 포함, 10개 이내)

② 심사평가체계 개선

○ 전문가 및 온라인 소비자 평가(소비자 현장점감단의 모니터링) 중심의 단년 성과 및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난 평가

○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초한 소비자 현장평가, 자체성과관리 평가 등의 체계 연계로 보완함

③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 문체부 산하에 축제지원전담조직인 '축제지원센터'을 지정하여 축제 조사·연구, 평가, 축제 전문인력양성, 축제 산업, 축제 교류협력 지원 등 수행

- (가칭) 중앙에 '문화관광축제지원센터', 지역별로 축제지원전담조직'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
- 이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축제지원전담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축제 이해관계자(지자체, 여행사, 축제기획자 등), 일반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필요

○ 축제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조사·통계, 홍보, 지식, 자원 등)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점차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료, 축제 기획·운영관리 경험, 축제 콘텐츠·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정보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해 축제 통합 지식정보 플랫폼 구축 기본구상을 수립, 추진함(2020~21년)

○ 축제기획, 홍보 및 컨설팅, 그리고 축제 관계자 및 종사자, 지역주민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할 축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함

○ 전국 문화관광축제 간 협력과 성공 사례 및 축제경영 기법 공유, 협업 촉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축제지원협의체'를 발족함

4. 시사점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실버세대의 관광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가치소비에 기반을 둔 자기중심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및 저성장 기조의 국내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경우 소유보다는 체험을 중시하는 일상하된 여행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 최근 주된 여행 성향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주변의 지인을 통해 얻은 여행정보를 기반으로, 자가용을 타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휴식을 위해 음식을 포함한 자연감상을 하는 것으로 요약됨

○ 한편 1996년 시작된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그간의 도입기, 도약기, 성장기 및 조정기를 거쳐 이제는 축제의 자생력 강화에 힘써야 할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그간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다 보니 지역적, 문화적 상징성이 약화되기 쉬운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

○ 즉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방문객수를 늘리기 위해 행사 위주의 이벤트적 요소가 강조된 획일화된 축제가 남발하게 되었고, 이는 축제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행사라는 비판으 받게 됨

○ 그 과정에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행정주도형 축제가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는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었음

○ 이러한 비판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자생력을 갖춘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해 문체부의 축제에 대한 지원방식 또한 그간의 직접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점차 컨설팅 및 홍보활동에 지원하는 간접적인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음

○ 2020년-2021년 선정된 문화관광축제(예비축제 포함)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역적 특성이 부각되는 축제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2020년 문체부지정 문화관광축제에는 도내에서 음성품바축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있어, 도내 축제의 대외적 위상을 몹시 낮은 현실에 직면

○ 지역을 대표할만한 축제 양성을 위하 우선적으로 지역 특성을 테마로 한 축제의 발굴 및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Ⅲ장
코비드-19와 축제

1. 코비드-19 이후의 관광환경 변화

○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위락 시설보다는 힐링과 건강을 생각하는 자연환경 중심의 관광지 선호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자연친화형 여행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먼 지역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한 생활권 중심의 근거리 관광을 선호하게 되며, 불특정 다수와 접하지 않는 관광숙박지가 선호될 것으로 보임

○ 한편 타인과의 대면적인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는 럭셔리 관광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률적인 대량생산에 기반을 둔 과시적인 관광상품보다는 방문하는 지역의 특성을 진정으로 느낌으로써 삶의 질 고양을 도모할 수 있는 여행, 즉 다품종 소량생산에 근거한 다양한 맞춤형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함

○ 스포츠, 공연, 이벤트, 측제 등 메가이벤트 관련 산업은 당분간 대규모 집합금지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관광객들의 안전이나 위생에 대한 투자와 홍보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디지털화에 따른 다양한 관광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체류하는 곳을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내 지근 거리에서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지금까지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부분의 축제행사는 점차 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됨으로써 나타나는 실물경기의 위축이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관광산업 부문의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함

2.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구분	내용
조사목적	코로나19가 국민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 분석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설문대상	『대한민국 구석구석 Web/App/SNS』 및 『휴가샵』 이용 국민
조사기간	2020.5.7.~5.17(11일간)
설문참여자 수	약 2만 명
추진주체	한국관광공사

○ 코로나19 본격화 이전에 계획했던 연간 여행횟수는 평균 6회였으나,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의 횟수는 평균 1.8회로 70% 정도 급감함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23.~5.5.) 동안 국내여행을 계획했던 응답자 중 84.9%가 실제로 여행 취소로 응답함
- 특히 15세 미만 자녀 동반 여행자의 여행계획은 코로나19 이전 6.5회에서 이후 1.9회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비율도 87.5%로 나타남

○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도(43.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강원도(23.4%)”, “경상도(14.0%)”, “부산(10.4%)”, “전라도(6.9%)”, “경기도(1.3%)”, “충청도(0.7%)” 등의 순을 보임

-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여수(4.7%)”와 “강릉(4.5%)”, “경주(4.4%) 등으로 나타남

○ 또한 여행동반자로는 응답자 거의 모두가 “가족”(99.6%)을 들고있는데, 이는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49.4%)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임

- 여행동반자로 “친구·연인”을 선택한 비중은 27.3%로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41.2%)에 비해 크게 축소됨
- “친목단체·모임(0.1%)”, “친척(0.8%)”, “직장동료(1.1%)” 등 동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단체 구성은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 한편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여행지 선정 기준’, ‘여행 횟수’, ‘여행 테마’, ‘여행 일정’, ‘여행 수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비대면’ 여행패턴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그 중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 숨겨진 여행지 선호” 및 “여행횟수 줄이기”, 그리고 “과거보다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여행”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응답함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여행패턴 변화(주관식, 다중 응답 가능)	빈도	%
여행지 선정 기준의 변화		
기존의 유명관광지 및 지역축제보다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과 숨겨진 여행지 선호	5,150	34%
실내 보다는 야외 방문 선호	1,273	8%
해외 보다는 국내여행 선호	1,026	7%
장거리 보다는 근거리(지역 내) 선호	413	3%
다수의 확진자 발생 지역 기피	282	2%
관광지, 숙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고려	343	2%
여행횟수의 변화		
여행 횟수 자체를 줄이기	1,910	13%

코로나 19 발생 이후 여행패턴 변화(주관식, 다중 응답 가능)	빈도	%
여행테마의 변화		
맛집탐방/체험활동(특히 물놀이) 보다 자연경관 감상 선호	573	4%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숙소위주 휴양여행 선호 (ex 호캉스, 풀빌라)	467	3%
단체여행 보다 소규모/나홀로 여행 선호	402	3%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여행 선호	184	1%
여행 일정의 변화		
당일치기 혹은 단기여행 선호	494	3%
주말/성수기 보다는 주중/비성수기 선호	170	1%
낮 시간 보다는 이른 아침/늦은 저녁 여행 선호	65	0%
여행수단의 변화		
대중교통 보다 자차 이용 선호	491	3%
다중숙박시설보다는 캠핑/독채펜션 선호	209	1%
숙소이용보다 차박 선호	32	0%
기타		
마스크착용, 소독제지참 등 과거보다 개인 위생 신경쓰며 여행	1,498	10%
SNS 업로드자제 및 조용히 다녀오기 (눈치보임, 여행 분위기 부추길까봐)	26	0%

○ 향후 국내여행 재개시, 희망 활동에 대한 응답으로는 「자연 및 풍경감상(79.2%)」, 「음식관광(68.6%)」, 「휴식/휴양(58.7%)」 등 순으로 희망하고 있음

주요활동(중복응답)	빈도	국내여행 의향조사	2018 국민여행조사
자연 및 풍경감상	15,422	79.2%	68.2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	13,355	68.6%	57.0
휴식/휴양	11,440	58.7%	54.7
테마파크, 놀이시설, 동/식물원 방문	4,086	21.0%	-
역사 유적지 방문	4,079	20.9%	
온천/스파	3,767	19.3%	
야외 위락 및 스포츠, 레포츠 활동	3,569	18.3%	
지역 축제/이벤트 참가	3,121	16.0%	
지역 문화예술/공연/전시시설 관람	2,833	14.5%	
쇼핑	2,506	12.9%	
시티투어	1,813	9.3%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	1,357	7.0%	
드라마 촬영지 방문	981	5.0%	
스포츠 경기관람	620	3.2%	
유흥/오락	564	2.9%	
카지노, 경마, 경륜 등	222	1.1%	
기타	46	0.2%	

3. 도내 축제 현황

1) COVID-19 이전

(1) 도내 축제 추이 및 시군별 비중

○ 2007년 충북의 개최 축제 수는 57개로서 전국의 8%를 차지하였는데,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50개 전후로 개최되어 전국 비중 5%p 중반을 유지하고 있음

〈표 Ⅲ-1〉 개최 축제수비교 (전국/충북)

구분	전국	충북	
			비중
2007	716	57	8.0
2008	926	52	5.6
2009	921	50	5.4
2014	555	30	5.4
2015	664	38	5.7
2019	884	49	5.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역축제 개최계획”, 각년도
주: 각 지자체에서 연초에 수립하는 계획 자료

○ 2007년 이후 시군별 축제 추이를 보면, 통합 청주시가 2019년 9개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고 타 시군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청주 다음으로 2009년 기준 괴산군이 6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제천, 옥천, 단양이 5개, 충주, 보은, 영동이 4개 개최로 뒤를 잇고 있음

○ 음성군의 경우 총 3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중 품바축제가 문화관광축제에 지정되어 있음

○ 충북 전체로는 2014년을 제외하면 대략 50개 전후에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표 Ⅲ-2〉 도내 시군별 축제 개최 비중

지역	2007	2008	2009	2014	2015	2019	비중
충북도	1	-	-	-	-	-	-
청주시	2	1	-	1	3	9	18.4
청원군	4	4	4	2			
충주시	8	8	8	5	10	4	8.2
제천시	7	7	4	2	3	5	10.2
보은군	5	5	6	1	1	4	8.2
옥천군	4	4	4	3	4	5	10.2
영동군	3	3	4	4	4	4	8.2
증평군	4	2	2	1	1	2	4.1
진천군	4	4	4	2	2	2	4.1
괴산군	4	6	7	2	3	6	12.2
음성군	3	3	3	5	5	3	6.1
단양군	8	5	4	2	2	5	10.2
합계	57	52	50	30	38	49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역축제 개최계획”, 각년도
주: 각 지자체에서 연초에 수립하는 계획 자료

(2) 축제종류 분포와 도지정축제(2009년)

○ 2009년 개최된 축제를 특성별로 나누어 보면 문화예술과 지역특산물 축제가 15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다음으로 전통역사를 주제로 한 축제가 9개, 생태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축제가 6개 개최되고 있음

〈표 Ⅲ-3〉 축제종류별 분포

축제종류	기타	문화예술	생태자연	전통역사	주민화합	지역특산물	합계
축제수	1	15	6	9	2	15	48

음성 설성문화제&음성청결고추축제 제외한 분류

○ 시군별로 보면 문화예술축제는 청주 제천, 보은, 옥천, 단양 등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통역사자원에 기반한 축제는 거의 모든 시군에서 고르게 개최되고 있음

○ 지역특산물 축제는 옥천, 영동, 괴산에서 주로 개최되고 있으며, 생태자연 축제는 충주, 제천, 괴산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음

○ 주민화합형 축제는 청주와 진천 두 군데에서 열리고 있음

〈표 Ⅲ-4〉 지역별 축제종류 분포

지역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합계
축제수	기타	1											1
	문화예술	4	1	3	2	2					1	2	15
	생태자연		3	1						2			6
	전통역사	2		1	1		1	1	1	1		1	9
	주민화합	1							1				2
	지역특산물	1			1	3	3	1		3	1	2	15
합계		9	4	5	4	5	4	2	2	6	2	5	48

음성 설성문화제&음성청결고추축제 제외한 분류

○ 2020년도 충청북도 지정축제에는 총 7개가 랭크되어 있음

○ 최우수축제에는 음성 품바축제, 옥천 지용제 등 2개, 우수축제에는 괴산 고추축제, 증평 인삼골축제 그리고 유망축제에는 단양 온달문화축제, 영동포도축제, 청주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등 3개가 지정되어 각각 도비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 받게 됨

지역	축제명	지원
최우수축제	음성 품바축제, 옥천 지용제	7천만원
우수축제	괴산 고추축제, 증평 인삼골축제	5천만원
유망축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영동포도축제, 청주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3천만원

(3) 도내 축제의 권역별 특성(2009년)

○ 도내 축제는 주로 2-3일간 개최되고 있는데, 3일 일정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16개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4일간 개최하는 축제가 26.5%, 2일간 개최하는 축제가 22.4%의 순을 보이고 있음

○ 5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도 9개 정도 있는데 북부권에 충주무술축제, 제천겨울벚꽃축제, 제천얼음축제, 제천국제음악제 등 4개로 집중되어 있고 중부권, 청주권에 각 2개 그리고 남부권에 1개 축제가 있음

○ 한편 중부권에는 괴산의 백마권겨울축제가 24일간 개최되었으며, 음성 품바축제가 5일간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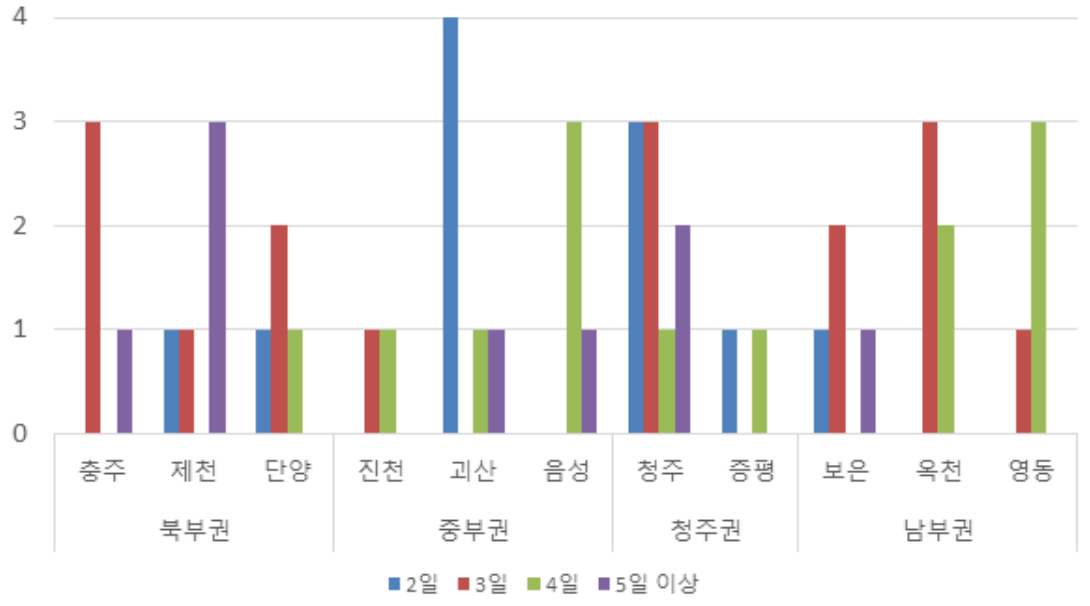
○ 청주권에서는 청원생명축제가 10일간, 청주공예비엔날레가 41일간 개최되었으며, 보은 대추축제가 10일 일정으로 개최되었음

○ 도내 축제의 경우 겨울에 개최되는 축제가 장기간 일정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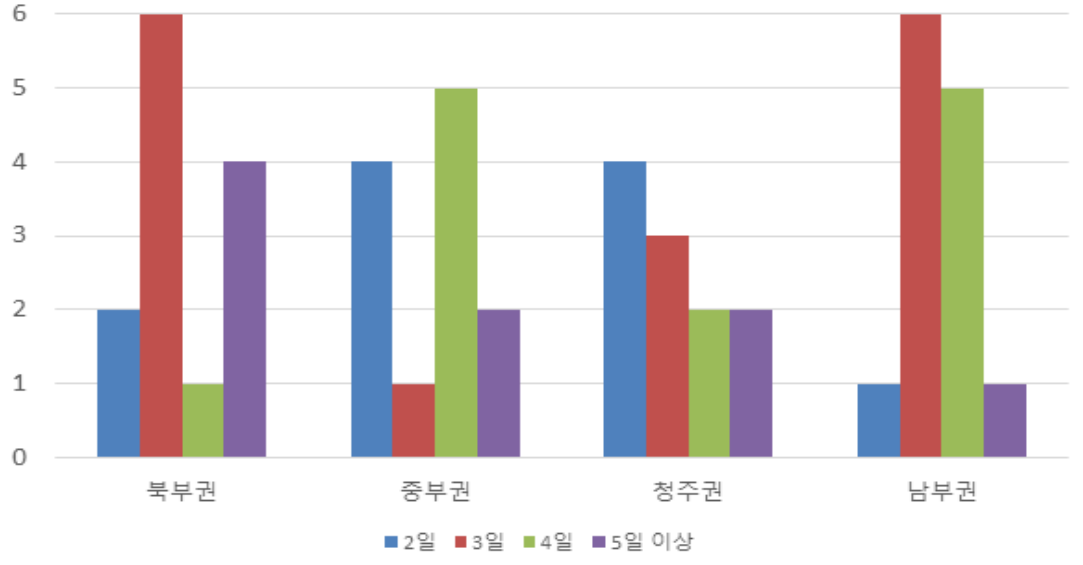
〈표 Ⅲ-5〉 충북 권역별 축제 개최기간 비교(2019년)

구분	개최 기간				
	2일	3일	4일	5일 이상	합계
충북	**11**	**16**	**13**	**9**	**49**
북부권	2	6	1	4	13
충주시	-	3	-	1	4
제천시	1	1	-	3	5
단양군	1	2	1	-	4
중부권	4	1	5	2	12
진천군	-	1	1	-	2
괴산군	4	-	1	1	6
음성군	-	-	3	1	4
청주권	4	3	2	2	11
청주시	3	3	1	2	9
증평군	1	-	1	-	2
남부권	1	6	5	1	13
보은군	1	2	-	1	4
옥천군	-	3	2	-	5
영동군	-	1	3	-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전국 지역축제 개최계획"
주: 음성 설성문화제&음성청결고추축제를 분류기준에 따라 2개로 구분하고, 단양 아로니아축제 제외



〈그림 Ⅲ-1〉 시군별 축제 개최기간 비교



〈그림 Ⅲ-2〉 권역별 축제 개최기간 비교

○ 도내 축제의 개최횟수를 보면 20회 미만이 33개로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음

○ 권역별로 보면 10회 미만 개최되는 축제의 경우 청주권, 북부권, 중부권이 각각 6개, 5개, 4개 축제를 보이고 있고 남부권에서는 영동군의 대한민국와인축제가 10회째 개최되고 있음을 보여줌

○ 11회에서 20회를 맞이하는 축제는 보은, 옥천, 영동이 각각 2개, 3개, 2개 등 남부권이 7개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도 초정약수축제, 청원생명축제, 청주읍성큰잔치 등 3개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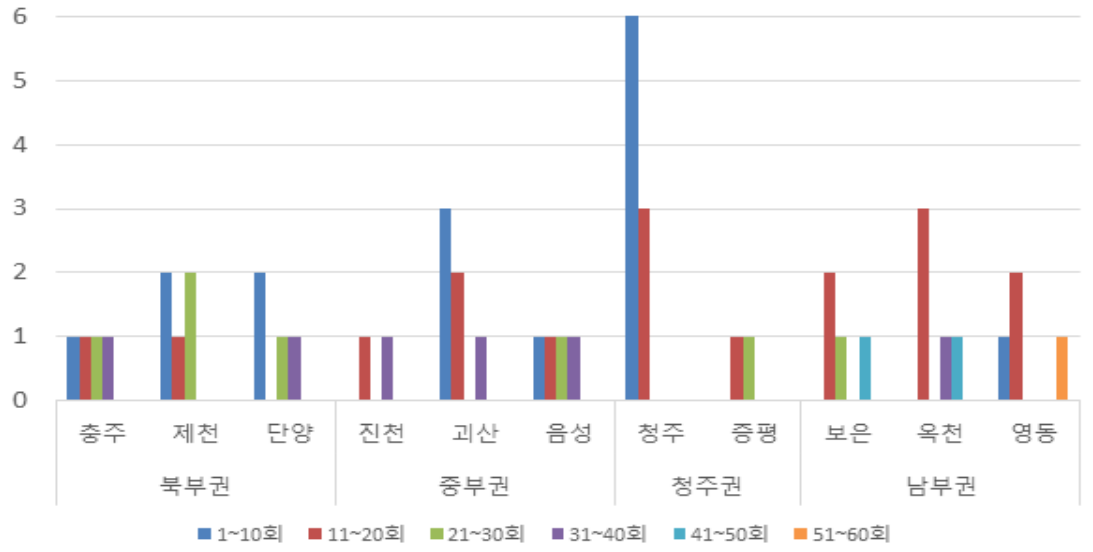
○ 31-40회 개최 축제는 북부권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북부권에서는 충주 수안보온천제와 단양 소백산철쭉제가 있고, 중부권의 진천, 괴산, 음성군에서는 각각 생거진천문화축제가 40회째, 괴산 연풍주령제가 37회째 그리고 음성의 설성문화제가 38회째 개최되고 있음

○ 41회 이상 개최된 축제는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바, 보은 속리산신축제가 42회, 옥천의 중봉충열제가 44회 그리고 1965년에 시작된 영동의 난계국악축제가 2019년에 52회째 개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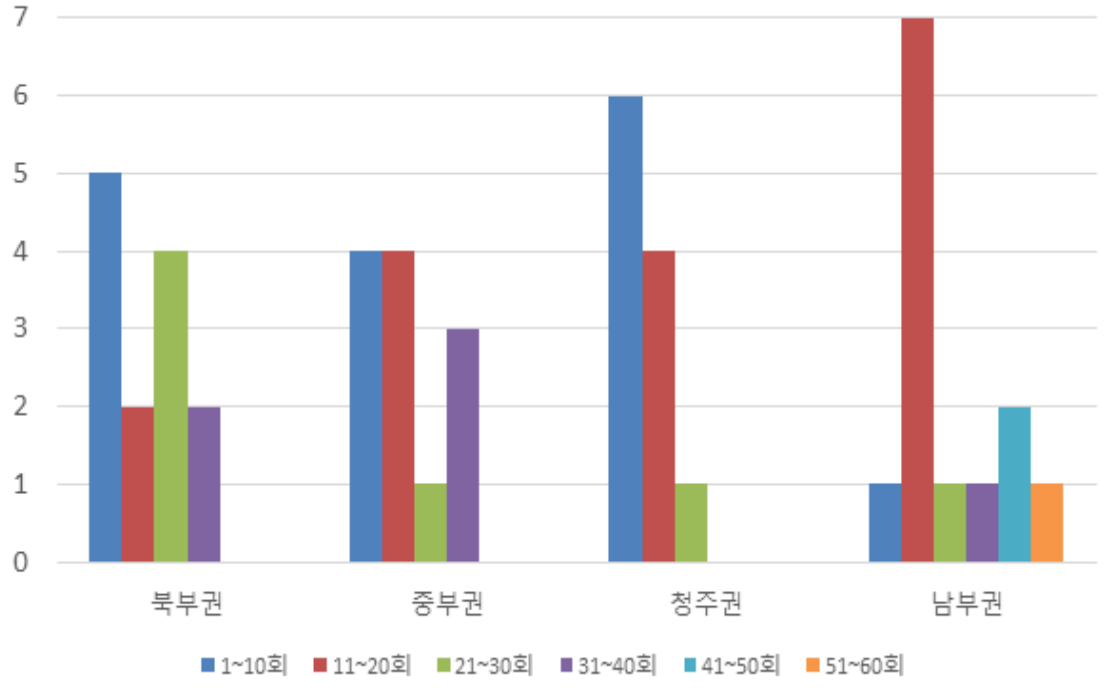
〈표 Ⅲ-6〉 충북 권역별 축제 개최횟수 비교(2019년)

구분	개최 횟수						
	1~10회	11~20회	21~30회	31~40회	41~50회	51~60회	합계
충북	**16**	**17**	**7**	**6**	**2**	**1**	**49**
북부권	5	2	4	2	-	-	13
충주시	1	1	1	1	-	-	4
제천시	2	1	2	-	-	-	5
단양군	2	-	1	1	-	-	4
중부권	4	4	1	3	-	-	12
진천군	-	1	-	1	-	-	2
괴산군	3	2	-	1	-	-	6
음성군	1	1	1	1	-	-	4
청주권	6	4	1	-	-	-	11
청주시	6	3	-	-	-	-	9
증평군	-	1	1	-	-	-	2
남부권	1	7	1	1	2	1	13
보은군	-	2	1	-	1	-	4
옥천군	-	3	-	1	1	-	5
영동군	1	2	-	-	-	1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전국 지역축제 개최계획"
주: 음성 설성문화제&음성청결고추축제를 분류기준에 따라 2개로 구분하고, 단양 아로니아축제 제외



〈그림 Ⅲ-3〉 시군별 축제 개최횟수 비교



〈그림 Ⅲ-4〉 권역별 축제 개최횟수 비교

○ 축제 예산 규모로 보면 6억 미만의 축제가 39개로 전체 49개 축제의 79.6%를 차지하고 있음

○ 구간별로 보면 1억 미만이 15개, 1억에서 3억미만이 13개 그리고 3억에서 6억 미만이 11개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6억 미만의 축제를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이 11개, 중부권이 10개, 청주권과 남부권이 각각 9개로 나타나 권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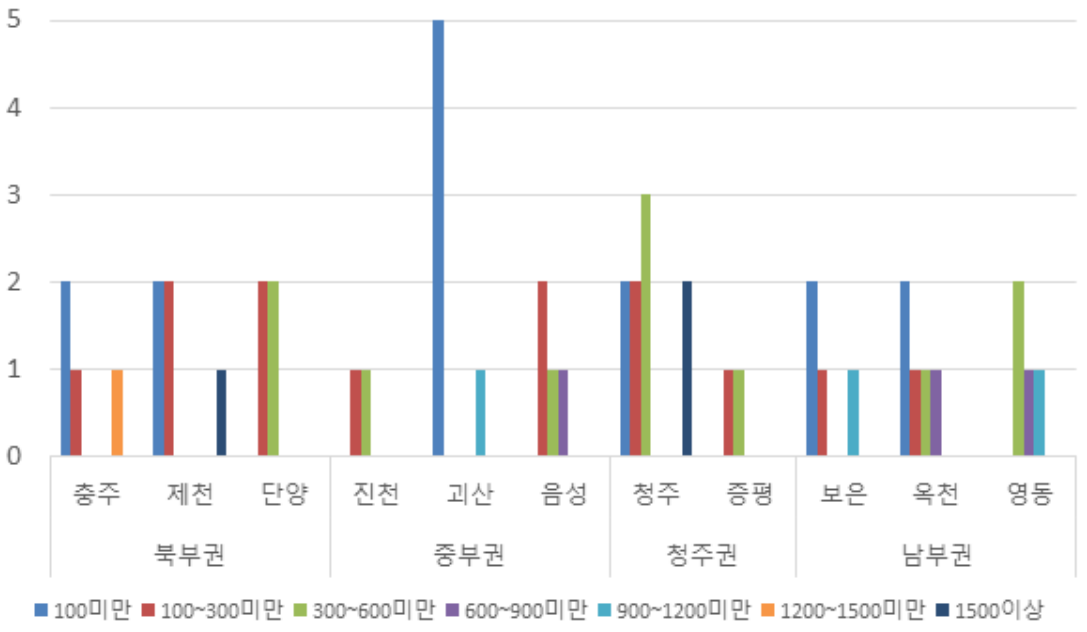
○ 6억에서 12억 구간을 보면 중부권과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음성 품바축제와 옥천의 지용제 그리고 영동포도축제가 6억에서 9억 미만의 예산규모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9억에서 12억 구간에는 괴산고추축제, 보은대추축제 그리고 영동의 난계국악축제가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충주세계무술축제가 12억원의 예산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15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축제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청주의 청원생명축제와 공예비엔날레를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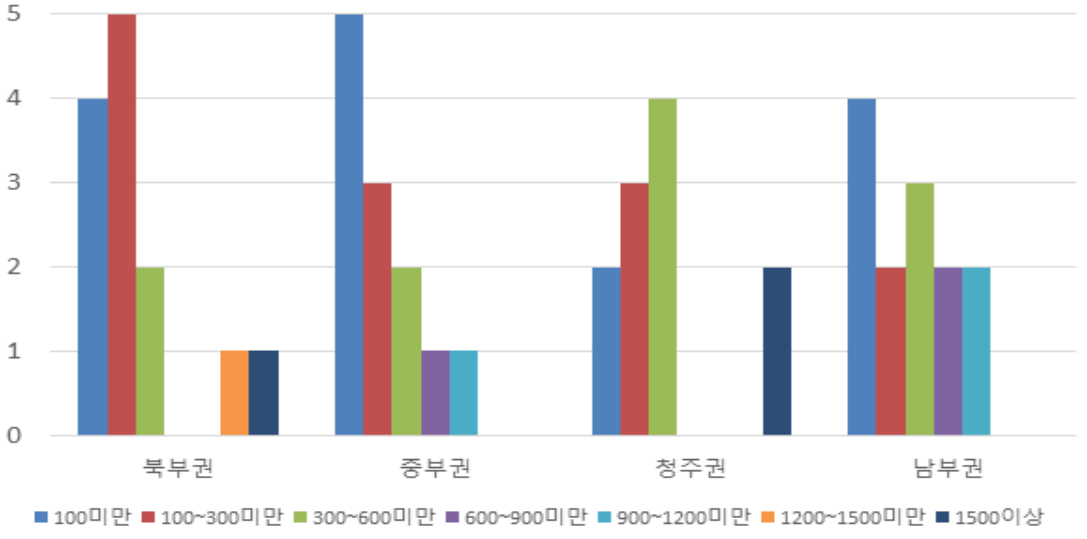
〈표 Ⅲ-7〉 충북 권역별 축제예산 비교(2019년)

구분	축제 예산(백만원)							
	100미만	100~300 미만	300~600 미만	600~900 미만	900~1200 미만	1200~1500 미만	1500이상	합계
충북	**15**	**13**	**11**	**3**	**3**	**1**	**3**	**49**
북부권	4	5	2	-	-	1	1	13
충주시	2	1	-	-	-	1	-	4
제천시	2	2	-	-	-	-	1	5
단양군	-	2	2	-	-	-	-	4
중부권	5	3	2	1	1	-	-	12
진천군	-	1	1	-	-	-	-	2
괴산군	5	-	-	-	1	-	-	6
음성군	-	2	1	1	-	-	-	4
청주권	2	3	4	-	-	-	2	11
청주시	2	2	3	-	-	-	2	9
증평군	-	1	1	-	-	-	-	2
남부권	4	2	3	2	2	-	-	13
보은군	2	1	-	-	1	-	-	4
옥천군	2	1	1	1	-	-	-	5
영동군	-	-	2	1	1	-	-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전국 지역축제 개최계획”
주: 음성 설성문화제&음성청결고추축제를 분류기준에 따라 2개로 구분하고, 단양 아로니아축제 제외



〈그림 Ⅲ-5〉 시군별 축제예산 비교



〈그림 Ⅲ-6〉 권역별 축제예산 비교

○ 축제의 성격으로 볼 때 문화예술 및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31개로 전체 축제의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전통역사, 생태자연을 주제로 한 축제가 각각 9개, 6개의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문화예술축제를 권역별로 보면 북부권이 6개 축제로 가장 많고, 이어서 청주권과 남부권이 각각 4개 그리고 중부권의 음성군이 2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는 청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4개, 3개 축제를 개최함

○ 생태자연을 주제로 한 축제는 충주시가 수안보온천제, 충주호 벚꽃축제, 앙성온천축제 등 3개 축제를, 괴산군은 백마권겨울축제와 청천환경문화축제 등 2개 이어서 제천시가 청풍호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남부권에서는 개최되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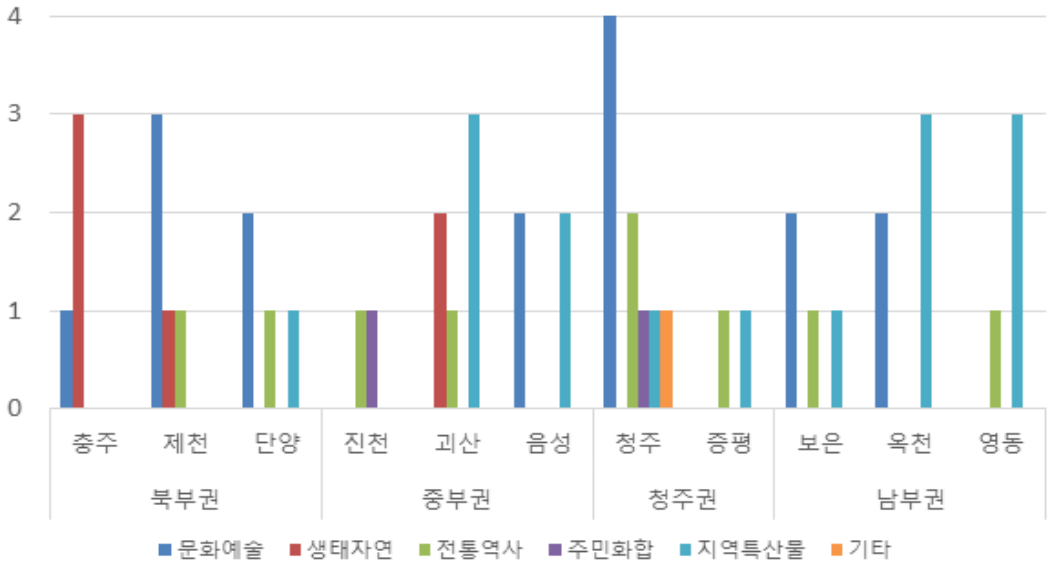
○ 전통역사를 주제로 한 축제는 권역별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치로 개최되고 있으며 진천군과 청주시에서는 주민화합형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지역특산물축제는 남부권에서 7개를 개최하여 전체의 4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부권에서 5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보면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이 각각 3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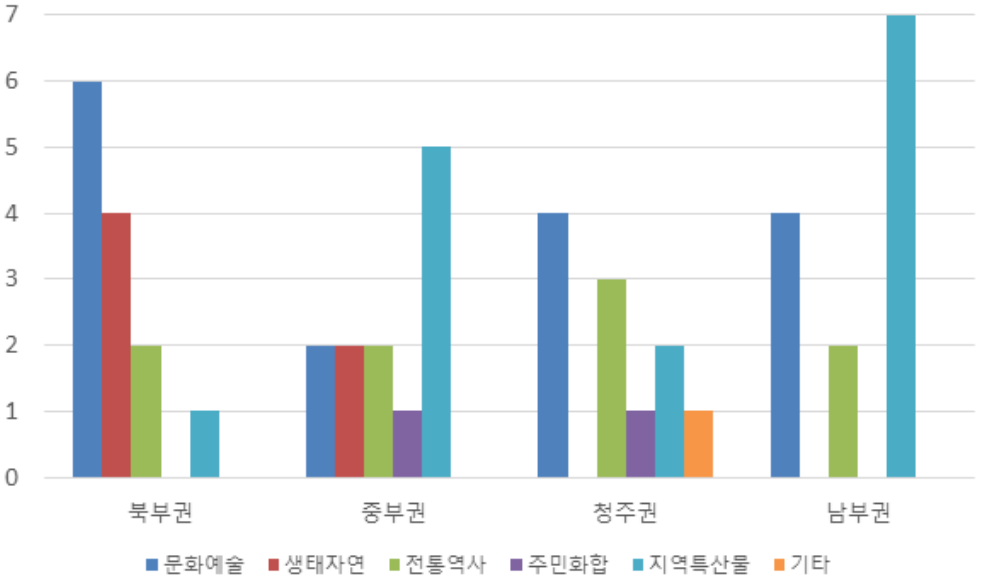
〈표 Ⅲ-8〉 충북 권역별 축제종류 비교(2019년)

구분	축제 종류						
	문화예술	생태자연	전통역사	주민화합	지역특산물	기타	합계
충북	**16**	**6**	**9**	**2**	**15**	**1**	**49**
북부권	6	4	2	-	1	-	13
충주시	1	3	-	-	-	-	4
제천시	3	1	1	-	-	-	5
단양군	2	-	1	-	1	-	4
중부권	2	2	2	1	5	-	12
진천군	-	-	1	1	-	-	2
괴산군	-	2	1	-	3	-	6
음성군	2	-	-	-	2	-	4
청주권	4	-	3	1	2	1	11
청주시	4	-	2	1	1	1	9
증평군	-	-	1	-	1	-	2
남부권	4	-	2	-	7	-	13
보은군	2	-	1	-	1	-	4
옥천군	2	-	-	-	3	-	5
영동군	-	-	1	-	3	-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전국 지역축제 개최계획”
주: 음성 설성문화제&음성청결고추축제를 분류기준에 따라 2개로 구분하고, 단양 아로니아축제 제외



〈그림 Ⅲ-7〉 시군별 축제종류 비교



〈그림 Ⅲ-8〉 권역별 축제종류 비교

○ 축제운영 방식에는 전체위탁, 부분위탁 그리고 자체추진하는 축제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짐

○ 전체 위탁하는 경우가 26개 그리고 자체추진하는 축제가 20개로 두 부문의 축제가 전체의 93.9%를 차지하고 있음

○ 자치단체별로 보면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그리고 보은군이 축제의 운영을 전체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증평군도 들노래축제와 인삼골축제 등 2개 축제 모두 부분위탁 방식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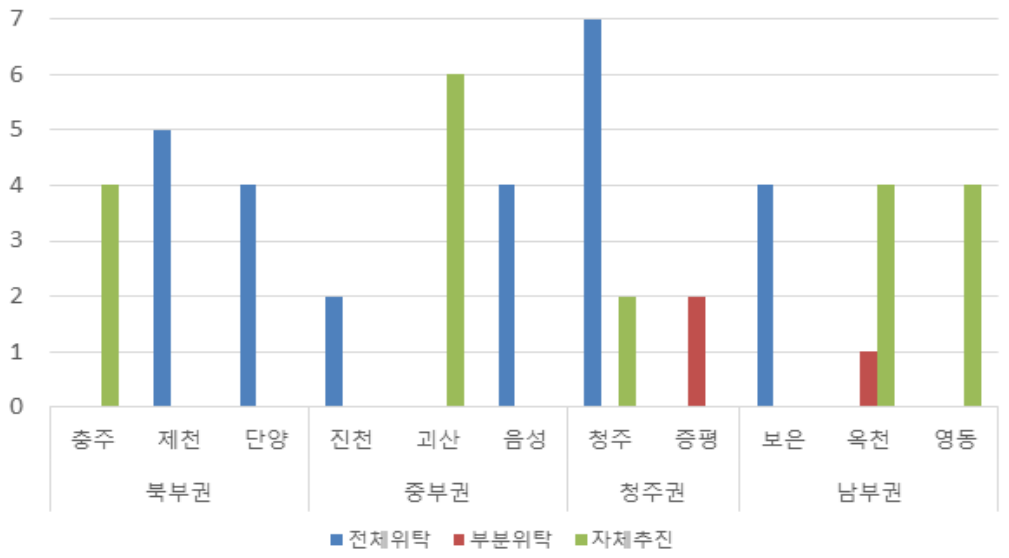
○ 충주시, 괴산군 그리고 영동군은 축제 전반을 자체추진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부분위탁하는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축제를 자체추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축제 모두를 전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천, 단양, 진천, 음성, 보은군의 경우 점차 자체추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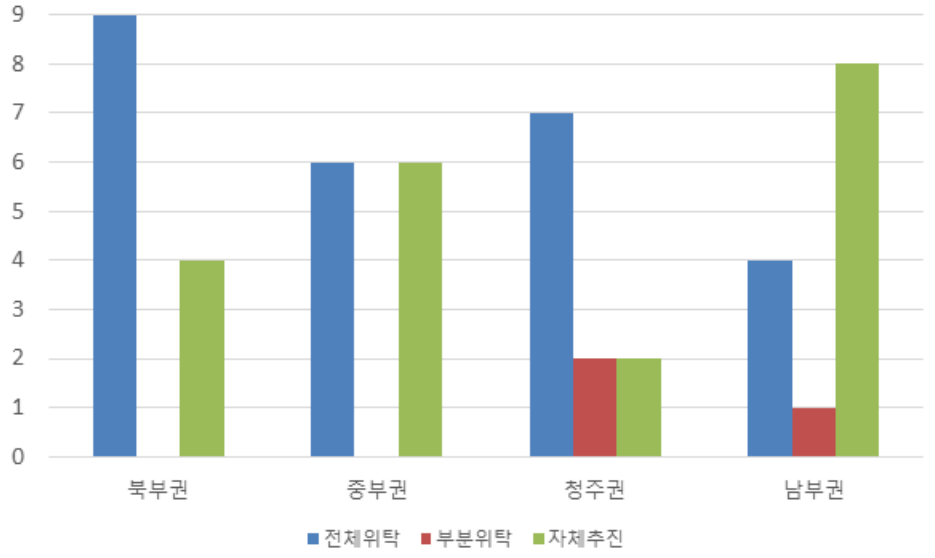
〈표 Ⅲ-9〉 충북 권역별 축제 위탁운영 여부 비교(2019년)

구분		위탁운영 여부			
		전체위탁	부분위탁	자체추진	합계
충북		**26**	**3**	**20**	**49**
북부권		9	-	4	13
	충주시	-	-	4	4
	제천시	5	-	-	5
	단양군	4	-	-	4
중부권		6	-	6	12
	진천군	2	-	-	2
	괴산군	-	-	6	6
	음성군	4	-	-	4
청주권		7	2	2	11
	청주시	7	-	2	9
	증평군	-	2	-	2
남부권		4	1	8	13
	보은군	4	-	-	4
	옥천군	-	1	4	5
	영동군	-	-	4	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전국 지역축제 개최계획”
주: 음성 설성문화제&음성청결고추축제를 분류기준에 따라 2개로 구분하고, 단양 아로니아축제 제외



〈그림 Ⅲ-9〉 시군별 축제 위탁운영 여부 비교



〈그림 Ⅲ-10〉 권역별 축제 위탁운영 여부 비교

2) COVID-19 이후

○ 2019년 말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COVID-19는 증상이 없는 감염 초기에 전염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일종으로 '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도 불림

○ 2003년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2012년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으로 밝혀짐

○ 이후 전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 이듬해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기에 이름

○ 팬데믹은 6단계로 나뉘어진 전염병 경보단계중 최고 위험 등급으로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대량살상을 동반한 전염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함

○ 역사적으로는 14세기 흑사병, 20세기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이 있으며, WHO에 의해서는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선언한 사례가 있는 '감염병 세계 유행'을 뜻함

○ COVID-19는 주로 기침, 재채기 그리고 말할 때 발생하는 비말에 의해 호흡기로 전염되며 비말이 전파범위는 1-3m, 4.5m 그리고 넓게는 8.2m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며, 잠복기를 세계보건기구는 2-10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14일로 추정함

(1) 2020년 시도별 지역축제 개최 현황

○ COVID-19는 지역축제 개최에 직격탄을 날림으로써 축제의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절차를 겪게 됨

○ 2020년 5월 4일 기준, 6월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에 있던 축제 358개 중 개최 완료된 축제는 1월달에 개최된 태뱍산눈축제가 유일한 경우임

○ 358개 축제중 51.7%에 달하는 185개 축제는 취소되었으며 128개 축제는 개최연기 그리고 44개 축제는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 1~6월 개최 계획에 대한 현황 조사(5.4 기준)

구분	총계 (당초계획)	1~6월	개최완료	개최취소	개최연기	검토중
서울	81	25	0	12	10	3
부산	45	15	0	6	7	2
대구	38	11	0	4	7	0
인천	19	4	0	1	3	0
광주	8	3	0	0	2	1
대전	8	4	0	1	3	0
울산	23	10	0	3	3	4
세종	2	0	0	0	0	0
경기	110	37	0	21	13	3
강원	97	30	1	11	11	7
충북	40	15	0	9	6	0
충남	98	41	0	25	12	4
전북	57	28	0	14	10	4
전남	122	58	0	37	11	10
경북	86	29	0	12	15	2
경남	95	36	0	21	11	4
제주	39	12	0	8	4	0
합계	968	358	1	185	128	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지역축제 현황”
주: 각 지자체에서 연초에 수립하는 계획 자료로서, 공식 통계자료는 아님

○ 10월 16일 현재를 기준으로 2020년 지역축제 개최 현황을 살펴 보면, 1월 20일 이후 개최예정이었던 947개 축제중 개최 완료된 축제는 65개로 개최중인 축제 34개를 포함하여 전체의 10.5%에 그치고 있음

○ 전체의 78.5%에 달하는 743개 축제는 취소되었으며, 게최연기, 개최예정인 축제도 실제 개최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있음

○ 이처럼 COVID-19는 기존의 축제개최 방식에 융단폭격을 가한 상황이 되고 말았음

〈표 Ⅲ-11〉 2020년 지역축제 현황(10.16 기준)

구 분	총계 (당초계획)	1.20~12월	개최완료	개최 중	개최취소	개최예정	개최연기	검토중
서울	81	80	13	3	50	10	0	4
부산	45	45	1	0	36	2	0	6
대구	38	38	6	2	20	6	1	3
인천	19	19	0	3	10	3	0	3
광주	8	8	0	2	2	2	0	2
대전	8	8	1	0	7	0	0	0
울산	23	23	5	0	10	4	0	4
세종	2	2	0	0	2	0	0	0
경기	110	110	6	8	87	8	0	1
강원	97	90	6	4	78	0	0	2
충북	40	38	3	3	30	2	0	0
충남	98	93	7	4	77	2	0	3
전북	57	56	7	0	43	3	0	3
전남	122	121	1	0	112	3	2	3
경북	86	85	5	4	64	8	0	4
경남	95	93	4	0	78	5	1	5
제주	39	38	0	1	37	0	0	0
합계	968	947	65	34	743	58	4	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지역축제 현황”
주: 각 지자체에서 연초에 수립하는 계획 자료로서, 공식 통계자료는 아님

(2) 2020년 충청북도 지역축제계획

○ 충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축제 41개중 개최 완료된 축제는 10개 축제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최된 축제중 7개는 온라인 축제방식을 주축으로 개최하였음

○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축제는 청주문화재야행,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보은의 대추축제와 옥천의 포도복숭아축제, 괴산의 고추축제와 김장축제 그리고 음성품바축제 등 7개 축제이고, 보은의 오장환문학제, 옥천의 중봉충열제 그리고 영동곶감축제는 개최를 완료하였음

○ 전체의 70.7%에 달하는 29개 축제는 취소되었으며, 제천 겨울왕국페스티벌과 옥천지용제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예정에 있음

〈표 Ⅲ-12〉 2020년 충청북도 축제 개최여부 현황

구분		축제수	비율(%)
개최완료	오프라인	3	7.3
	온라인	7	17.1
개최예정		2	4.9
개최취소		29	70.7
총합계		41	100.0

지역	축제명	기간	개최여부
청주시	제14회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5.29~5.31(3일간)	취소
	2020 청원생명축제	9.18~9.27(10일간)	취소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5.22~5.24(3일간)	취소
	청주읍성큰잔치	9.5~9.6(2일간)	취소
	청주문화재야행	8.28~29(2일간) → 10.12~18(7일간)	온라인
	가드닝 페스티벌	5.2~5.5(4일간)	취소
	2020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9.4~9.8(5일간)	취소
충주시	충주호수축제	7.31~8.6(7일간)	취소
	충주호벚꽃축제	4.3~4.5(3일간)	취소
	우륵문화제	9월 중(4일간)	취소
	충주농산물한마당축제	10월 중(3일간)	취소
제천시	제천겨울왕국페스티벌	19.12.20-20.1.27 → 20.12.24~21.1.24	예정
	제24회 청풍호 벚꽃축제	4.10~4.12(3일간)	취소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8.13~8.17(5일간)	온라인
보은군	2020 보은대추축제	10.16~25(10일간) → 10.16~30(15일간)	온라인
	속리산 신화여행축제	7.31~8.2(3일간)	취소
	제25회 오장환문학제	10월 중(2일간) → 10.23~11.8(17일간)	개최
	제18회 보은동학제	4.10~4.11(2일간)	취소
옥천군	제21회 옥천묘목축제	3.26~3.29(4일간)	취소
	제12회 옥천참옻축제	4.24~4.26(3일간)	취소
	제33회 지용제	5.14~5.17(4일간) → 11월	예정
	제14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24~26(3일간) → 7.10~9.9(2달간)	온라인
	제45회 중봉충렬제	10월 중(4일간) → 10.15~18(4일간)	개최
영동군	영동난계국악축제	8.27~8.30(4일간) → 10월중	취소
	대한민국와인축제	8.27~8.30(4일간) → 10월중	취소
	영동포도축제	8.27~8.30(4일간)	취소
	영동곶감축제	1.3~1.5(3일간)	개최
증평군	증평들노래축제	6.13~6.14(2일간)	취소
	증평인삼골축제	10.8~10.11(4일간)	취소
진천군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22~5.24(3일간)	취소
	생거진천 문화축제	10.9~10.11(3일간)	취소
괴산군	괴산고추축제	9.3~9.6(4일간) → 8.31~9.15(16일간)	온라인
	괴산김장축제	10.30~11.1(3일간) → 11.6~8(3일간)	온라인
	괴산유기농페스티벌	10.16~10.18(3일간)	취소
음성군	음성품바축제	5.27~31(5일간) → 8.26~30(5일간)	온라인
	설성문화제	10월 중	취소
	음성명작페스티벌	10월 중	취소
단양군	제5회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4.25~4.26(2일간)	취소
	제38회 단양 소백산 철쭉제	5.28~5.31(4일간)	취소
	제24회 단양 온달문화축제	10.23~10.25(3일간)	취소
	제14회 단양마늘축제	8월 중	취소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10월말 기준)

4. 시사점

○ 충북의 축제는 2007년 전국의 8%에 달하는 57개 축제에서 점차 조정기를 거치면서 최근 들어 전국 대비 5%대 중반의 안정적인 비중을 보임

○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의 9개 축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들은 대체로 2-6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숫자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축제 주제로 볼 때 대체로 문화예술과 지역특산물을 테마로 한 축제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통역사에 기반을 둔 축제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개최기간으로는 2-4일, 개최횟수로 보면 30회 미만, 예산 규모로는 6억 미만 그리고 축제 운영 방식으로는 전체위탁하는 경우와 자체추진하는 경우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문화관광축제 선정 기준으로 보면, 충북축제의 대외적 성적은 음성품바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유일한 축제라는 사실로 인해 매우 초라한 상황임

○ 이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난 인근 광역자치단체, 경기, 강원, 충남, 경상, 전라와의 비교를 통해 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COVID-19는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이벤트보다 친환경 자연에 기반을 둔 힐링형 관광지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가용을 이용한 생활권 중심의 근거리 관광을 선호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대량생산에 기반을 둔 과시적 관광상품에서 벗어난 다양한 맞춤형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임

○ COVID-19로 인해 2020년도 개최예정인 축제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개최된 경우에도 온라인 방식을 강화한 축제로 개최함

○ 한편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축제방식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IT와 온라인에 취약한 계층에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나타나 복지관광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블특정 다수가 모이는 기존의 축제방식은 COVID-19를 계기로 이후에 점차

급속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D3P를 근간으로 한 내륙의 섬'이라는 잘 보전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에 근거를 둔 축제 테마를 발굴하는 한편, 축제의 전과정에 축제 프로슈머로서 지역민이 골고루 참여하는 가장 지역적이고 자발적인 축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됨

○ 이는 지방자치 이후 급속한 양적 발전을 이루어 온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를 위해 너나없이 외지 방문객 유치에 열을 올림으로써, 일회성 이벤트형 축제가 남발하였던 상황 극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즉 외지인을 유치하여 우리집 마을 안에서 그들을 즐겁해 해주고, 그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기존의 축제평가 방식에서, 지역민 스스로 발굴한 축제테마를 기반으로 지역민이 축제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율형 축제로 성장하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제Ⅴ장
결론에 대신하여

1. 여건분석(SWOT)

강 점(S)	약 점(W)
- 국토 중심의 X축 결절지에 위치함으로써 전국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 수도권에 인접한 내륙의 섬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차별화 - 산, 강 등 개별 및 가족단위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적인 환경자원 풍부 -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독특한 지역색이 나타나는 다양한 유무형문화재 다수 보유	- 지속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대표할만한 축제의 부재 - 문화관광축제 지정 현황 열악 - 축제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재 - 축제에서의 킬링콘텐츠 부재 - 타 시도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축제 운영 방식 -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부족 - 축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부족 및 스마트관광화 저조
기 회(O)	**위 협(T)**
- 중앙정부의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점차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 자가용을 이용한 개별 및 가족단위 관광객 증대 - 대규모 전시성 행사 중심의 축제를 지양하는 분위기 -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생활권에서 가까운 근거리 여행의 비중 증대	- 자치단체간 축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축제 지원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 축소 경향 - 노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적극적 관광활동인구 축소 - 코비드-19로 인한 집합성 행사의 대대적인 제한

○ SO전략 :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자원의 개발 및 상품화

○ ST전략 : 프로슈머로서의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 WO전략 : 자발적인 축제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

○ WT전략 : 객관적인 축제평가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목표 및 전략

구 분	내 용
모 토	가장 지역적인 축제가 가장 세계적인 축제다
목 표	지속가능한 지역 대표축제 양성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진입 축제 비중 제고)
전 략	특화된 축제자원의 개발 및 축제를 통한 상품화 프로슈머로서의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자발적인 축제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 객관적인 축제평가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도내 축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지역적인 축제가 가장 세계적인 축제다'를 모토로 지속가능한 지역 대표축제 양성을 기본 목표로 설정함

○ 가장 지역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을 타 지역에는 없는, 타 지역과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해당 지역만의 특성에 근간을 둔 축제 테마를 새롭게 발굴하여 축제를 통한 상품화를 통해 구체화 함

○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민이 참여함으로써 축제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즉 또 다른 의미로서의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축제의 자생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축제의 지속가능한 자생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인 축제전담조직 및 축제전문인력의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축제 역량 강화는 물론 축제 노하우의 축적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축제의 혁신 및 질적인 고양을 위해 과학적인 모니터링에 기초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축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3. 정책적 함의

○ 현재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전시성 형태의 대형축제들은 점차 소멸하거나 몸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도며, 이는 COVID-19를 계기로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축제의 지원 규모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 방식 역시 간접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지역축제의 자생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됨

○ 다른 관광상품과 마찬가지로 축제 역시 자생력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자생력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축제 자생력 확보의 중요한 기반은, 첫 번째로 그 축제가 지역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근거로 시작됨으로써 해당 축제만의 고유한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 즉 축제의 테마를 공간적 영역내의 지역전통에 기반을 두었을 때, 축제에 참여하는 지역민의 정체성, 나아가서 역사성이 지속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는 최근 관광이동의 형태가 도시 또는 지역단위로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정체성의 상징화, 이슈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축제 테마가 지역 브랜드 강화와 직결되는 구조가 되는 것임

○ 둘째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프로슈머로서 축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요약할 수 있음

- 한편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는 축제에 대한 수요를 일정 부분 외부가 아닌 지역 내부에서 만족시킴으로서, 지역경제 측면에서 볼 때 외지 관광객의 유치와 비슷한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이 경우 축제를 이야기할 때 늘 모두에 등장하던 공자의 '近者悅 遠者來'라는 말은 여전히 유용한 개념으로 새롭게 다가옴

○ 이러한 축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계별 전략적 범위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1차로, 2020년 기준 문화관광축제로 기 지정된 음성품바축제 지정 유지와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옥천지용제, 괴산고추축제의 문화관광축제로의 진입
- 2차로, 도지정축제중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3개 축제를 제외한 증평 인삼골축제, 단양 온달문화축제, 영동포도축제, 청주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등 4개 축제의 예비 문화관광축제 진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3차로 지역적인 특성에 기반을 두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발굴하거나, 기 개최되었던 축제를 새롭게 발전시켜 지역대표축제로의 가능성을 타진함[8)]

○ COVID-19 이후 질적인 측면에서의 문화관광축제의 성격 전환,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지역적 테마 중심의 지역축제, 축제의 전 과정에 지역민이 골고루 참여함으로써 자율형 축제의 지속가능성이 증대되는 지역축제 등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8) 예를 들면, 보은의 도깨비축제, 증평의 밀때가콩때기축제, 옥천 청마리탑신제 등

참고문헌

■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구 분	내 용
글로벌육성 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대표축제 (3개)	무주반딧불축제,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3억 2천 지원
최우수축제 (7개)	강진청자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평창효석문화제– 2억 지원
우수축제 (10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제주들불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1억 1천 지원
유망축제 (21개)	고창모양성제, 광안리어방축제, 괴산고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목포항구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서산해미읍성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임실N치즈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춘천마임축제, 한산모시문화제 – 8천 지원
육성축제** (40개)	강릉커피축제, 굿모닝! 양림, 단양온달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대전국제와인페어, 독일마을맥주축제, 동성로축제, 부산영도다리축제, 부안오복마실축제, 석장리구석기축제, 세종축제,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연수능허대문화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영덕대게축제, 영산강서창들녘억새축제,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울산마두희축제, 울산옹기축제, 울산태화강봄꽃대향연, 유성온천축제, 이태원지구촌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해녀축제, 종로한복축제, 지용제, 청송도깨비사과축제, 탐라문화제, 태백산눈축제, 파주장단콩축제, 평창송어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 하동섬진강재첩문화축제, 한성백제문화제, 함양산삼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횡성한우축제

*대표등급을 일정기간 연속 유지하여 명예 졸업한 축제
**정부지원 없이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홍보지원

■ 2019 문화관광축제

구분	내용
글로벌 육성 축제(5개)*	화천산천어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탈춤축제
대표축제(3개)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찻사발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최우수축제 (7개)	담양대나무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보성다향대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제주들불축제(↑)
우수축제 (10개)	정남진장흥물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봉화은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강진청자축제.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수원화성문화제(↑), 춘천마임축제(↑), 임실N치즈축제(↑), 시흥갯골축제(↑)
유망축제 (21개)	순창장류축제, 음성품바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고창모양성제, 서산해미읍성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괴산고추축제, 완주와일드푸드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논산강경젓갈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신규), 영덕대게축제(신규), 횡성한우축제(신규), 강릉커피축제(신규), 평창송어축제(신규), 포항국제불빛축제(신규)
육성축제 (57개)	이태원지구촌축제, 한성백제문화제, 선사문화축제, 해운대북극곰축제, 광안리어방축제,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 수성못페스티벌, 비슬산참꽃문화제, 동성로축제, 연수능허대문화축제,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광주세계김치축제, 영산강서창들녘억새축제, 굿모닝양림,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유성온천문화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울산옹기축제, 울산고래축제, 울산마두희축제, 세종축제, 세종조치원복숭아축제, 연천구석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화성시뱃놀이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정선아리랑제, 태백산눈축제,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 고성통일명태축제, 증평인삼골축제, 단양온달문화축제, 지용제, 영동포도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논산딸기축제, 홍성역사인물축제, 부안마실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진안홍삼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목포항구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청송사과축제, 영주한국선비문화축제, 경주신라문화제, 영양산나물축제, 마산국화축제,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알프스하동섬진강문화재첩축제, 함양산삼축제, 탐라문화제, 탐라국입춘굿, 서귀포칠십리축제

*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졸업한 명예축제
※ (↑)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축제, (신규) 문화관광축제로 신규 진입한 축제

■ 2019 문화관광축제 지역별 현황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대구(2)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2~5.6 (5일간)	1978 (42회)	500	60	400	20	20	전통 역사	유망	사단 법인	전체위탁
대구치맥페스티벌	7.17~7.21 (5일간)	2013 (7회)	2,000	60	1,040	-	900	주민 화합	유망	(사)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인천(1)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7월~8월	2006 (14회)	1,070	70	1,000	-	-	문화 예술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광주(1)											
추억의충장축제	10.2~10.6 (5일간)	2004 (16회)	1,375	170	1,000	205	-	문화 예술	최우수	축제 위원회	부분위탁
경기(5)											
이천쌀문화축제	10.16~20 (5일간)	1999 (21회)	940	170	85	685	-	지역 특산물	최우수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10.2~10.6 (5일간)	2001 (19회)	1,675	170	85	1,420	-	문화 예술	최우수	축제 조직 위원회	자체추진
수원화성문화제	10.3~10.6 (4일간)	1964 (56회)	3,149	92	486	2,571	-	문화 예술	우수	재단 법인	전체위탁
시흥갯골축제	9.20~9.22 (3일간)	2006 (14회)	849	92	46	711	-	생태 자연	우수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여주오곡나루축제	10.17~10.20 (4일간)	1998 (21회)	908	70	35	803	-	지역 특산물	유망	재단 법인	자체추진
강원(7)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1.5~1.27 (23일)	2003 (16회)	2,710	-	-	2,710	-	기타	글로벌 육성	재단 법인	부분위탁
춘천마임축제	5.26~6.2 (8일간)	1989 (31회)	720	92	28	600	-	문화 예술	우수	재단 법인	전체위탁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원주다이내믹댄싱 카니발	9.3~9.8 (6일간)	2011 (9회)	1,584	92	28	1,464	-	문화 예술	우수	재단 법인	자체추진
평창효석문화제	9월초~중순 (10일간)	1999 (21회)	764	92	28	604	40	문화 예술	우수	사단 법인	자체추진
강릉커피축제	10월예정	2009 (11회)	500	70	21	349	60	문화 예술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횡성한우축제	10.2~10.6 (5일간)	2004 (15회)	2,140	70	21	2,049		지역 특산물	유망	재단 법인	자체추진
평창송어축제	18.12.22 ~'19.1.27 (37일간)	2008 (12회)	920	70	21	49	780	생태 자연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충북(2)											
괴산고추축제	9.5-9.8 (4일간)	2001 (18회)	940	70	70	800	-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음성품바축제	5.22~5.26	2000 (20회)	740	70	70	600	-	문화 예술	유망	사단 법인	전체위탁
충남(5)											
보령머드축제	7.19~7.28	1998 (22회)	2,470	-	-	2,470	-	문화 예술	글로벌 육성	재단 법인	자체추진
서산해미읍성축제	10.11~10.13	2000 (18회)	900	70	830	-	-	전통 역사	유망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강경젓갈추제	미정 (10월중)	1997 (22회)	845	70	35	690	50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부여서동연꽃축제	7.5~7.7 (3일간)	2003 (17회)	1,300	70	35	1,195	-	생태 자연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한산모시문화제	6.7~6.10 (4일간)	1989 (30회)	1,206	70	35	1,051	50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전북(11)											
김제지평선축제	9.27~10.6 (10일간)	1999 (21회)	2,556	-	60	2,496	-	전통 역사	글로벌 육성	사단 법인	부분위탁
무주반딧불축제	8.31~9.8 (9일간)	1997 (23회)	2,000	270	80	1,650	-	생태 자연	대표	사단 법인	전체위탁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 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담양대나무축제	5.1~5.6 (6일간)	1999 (21회)	690	170	-	500	20	지역 특산물	최우수	사단 법인	자체추진
보성다향대축제	5.2~6 (5일간)	1975 (45회)	870	170	-	700	-	지역 특산물	최우수	축제 추진위	전체위탁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3.21~24 (4일간)	1978 (40회)	770	170	-	600	-	생태 자연	최우수	사단 법인	자체추진
임실N치즈축제	10.3~10.6 (4일간)	2015 (5회)	572	92	80	400	-	지역 특산물	우수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정남진장흥물축제	7.26~8.1 (7일간)	2008 (12회)	1,592	92	-	1,500	-	생태 자연	우수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강진청자축제	10.3~9 (7일간)	1973 (46회)	992	92	-	900	-	문화 예술	우수	축제 추진위	자체추진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27~9.29	2011 (9회)	770	70	80	620	-	생태 자연	유망	축제 조직위	위탁
순창장류축제	10.19~10.21 (3일간)	2006 (14회)	650	70	80	500	-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고창모양성제	10.3~10.7 (5일간)	1972 (46회)	860	70	80	660	50	전통 역사	유망	사단 법인	부분위탁
전남(1)											
영암왕인문화축제	4.4~7. (4일간)	1997 (22회)	1,070	70	-	1,000	-	문화 예술	유망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경북(6)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27.-10.6. (10일간)	1997 (23회)	2,076	-	-	1,576	500	문화 예술	글로벌 육성	재단 법인	전체위탁
문경찻사발축제	4.27~5.6 (10일간)	1999 (21회)	940	270	270	400	-	문화 예술	대표	공공 (시군구) 축제 추진위 재단 법인	부분위탁
봉화은어축제	7.27~8.4 (9일간)	1999 (20회)	1,464	92	92	1,280	-	생태 자연	우수	사단 법인	부분위탁
영덕대게축제	3.21~3.24 (4일간)	1998 (22회)	740	70	70	600	-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 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대가야체험축제	4.11~4.14 (4일간)	2005 (15회)	1,400	70	70	1,260	-	전통 역사	유망	사단 법인	전체위탁
포항국제불빛축제	5.31~6.2 (3일간)	2004 (16회)	880	70	70	740	-	주민 화합	유망	재단 법인	전체위탁
경남(4)											
진주남강유등축제	10.1~10.13 (13일간)	2000 (19회)	3,900	-	100	1,800	2,000	전통 역사	글로벌 육성	재단 법인	자체추진
산청한방약초축제	9.27~10.9 (13일간)	2001 (19회)	2,105	270	135	1,700	-	지역 특산물	대표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통영한산대첩축제	8.10~8.14 (5일간)	1954 (58회)	1,088	92	46	950	-	전통 역사	우수	재단 법인	자체추진
밀양아리랑대축제	5.16~5.19. (4일간)	1957 (61회)	2,205	70	35	2,100	-	문화 예술	유망	재단 법인	전체위탁
제주(1)											
제주들불축제	3.7~3.10 (4일간)	1997 (22회)	1,660	-	1,660	-	-	전통 역사	최우수	공공 (시군구) 임의 단체	부분위탁

주 : 대구의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치맥페스티벌 예산의 경우는 2020년 계획안으로 재구성

■ 2019 문화관광축제 등급별 현황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 (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관광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글로벌육성축제(5)											
얼음나라화천산천어축제	1.5~1.27 (23일)	2003 (16회)	2,710	-	-	2,710	-	기타	글로벌육성	재단법인	부분위탁
보령머드축제	7.19~7.28	1998 (22회)	2,470	-	-	2,470	-	문화예술	글로벌육성	재단법인	자체추진
김제지평선축제	9.27~10.6 (10일간)	1999 (21회)	2,556	-	60	2,496	-	전통역사	글로벌육성	사단법인	부분위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9.27.-10.6. (10일간)	1997 (23회)	2,076	-	-	1,576	500	문화예술	글로벌육성	재단법인	전체위탁
진주남강유등축제	10.1~10.13 (13일간)	2000 (19회)	3,900	-	100	1,800	2,000	전통역사	글로벌육성	재단법인	자체추진
대표축제(3)											
무주반딧불축제	8.31~9.8 (9일간)	1997 (23회)	2,000	270	80	1,650	-	생태자연	대표	사단법인	전체위탁
문경찻사발축제	4.27~5.6 (10일간)	1999 (21회)	940	270	270	400	-	문화예술	대표	공공(시군구) 축제 추진위재단 법인	부분위탁
산청한방약초축제	9.27~10.9 (13일간)	2001 (19회)	2,105	270	135	1,700	-	지역특산물	대표	축제조직위	자체추진
최우수축제(7)											
추억의충장축제	10.2~10.6 (5일간)	2004 (16회)	1,375	170	1,000	205	-	문화예술	최우수	축제위원회	부분위탁
이천쌀문화축제	10.16~20 (5일간)	1999 (21회)	940	170	85	685	-	지역특산물	최우수	축제조직위	자체추진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10.2~10.6 (5일간)	2001 (19회)	1,675	170	85	1,420	-	문화예술	최우수	축제조직위원회	자체추진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 (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 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담양대나무축제	5.1~5.6 (6일간)	1999 (21회)	690	170	-	500	20	지역 특산물	최우수	사단 법인	자체추진
보성다향대축제	5.2~6 (5일간)	1975 (45회)	870	170	-	700	-	지역 특산물	최우수	축제 추진위	전체위탁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	3.21~24 (4일간)	1978 (40회)	770	170	-	600	-	생태 자연	최우수	사단 법인	자체추진
제주들불축제	3.7~3.10 (4일간)	1997 (22회)	1,660	-	1,660	-	-	전통 역사	최우수	공공 (시군구) 임의 단체	부분위탁
우수축제(10)											
수원화성문화제	10.3~10.6 (4일간)	1964 (56회)	3,149	92	486	2,571	-	문화 예술	우수	재단 법인	전체위탁
시흥갯골축제	9.20~9.22 (3일간)	2006 (14회)	849	92	46	711	-	생태 자연	우수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춘천마임축제	5.26~6.2 (8일간)	1989 (31회)	720	92	28	600	-	문화 예술	우수	재단 법인	전체위탁
원주다이내믹댄싱카니발	9.3~9.8 (6일간)	2011 (9회)	1,584	92	28	1,464	-	문화 예술	우수	재단 법인	자체추진
평창효석문화제	9월초~중순 (10일간)	1999 (21회)	764	92	28	604	40	문화 예술	우수	사단 법인	자체추진
임실N치즈축제	10.3~10.6 (4일간)	2015 (5회)	572	92	80	400	-	지역 특산물	우수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정남진장흥물축제	7.26~8.1 (7일간)	2008 (12회)	1,592	92	-	1,500	-	생태 자연	우수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강진청자축제	10.3~9 (7일간)	1973 (46회)	992	92	-	900	-	문화 예술	우수	축제 추진위	자체추진
봉화은어축제	7.27~8.4 (9일간)	1999 (20회)	1,464	92	92	1,280	-	생태 자연	우수	사단 법인	부분위탁
통영한산대첩축제	8.10~8.14 (5일간)	1954 (58회)	1,088	92	46	950	-	전통 역사	우수	재단 법인	자체추진
유망축제(21)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 (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5.2~5.6 (5일간)	1978 (42회)	500	60	400	20	20	전통 역사	유망	사단 법인	전체위탁
대구치맥페스티벌	7.17~7.21 (5일간)	2013 (7회)	2,000	60	1,040	-	900	주민 화합	유망	(사)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인천펜타포트음악 축제	7월~8월	2006 (14회)	1,070	70	1,000	-	-	문화 예술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여주오곡나루축제	10.17~10.20 (4일간)	1998 (21회)	908	70	35	803	-	지역 특산물	유망	재단 법인	자체추진
강릉커피축제	10월예정	2009 (11회)	500	70	21	349	60	문화 예술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횡성한우축제	10.2~10.6 (5일간)	2004 (15회)	2,140	70	21	2,049	-	지역 특산물	유망	재단 법인	자체추진
평창송어축제	18.12.22~'19.1.27 (37일간)	2008 (12회)	920	70	21	49	780	생태 자연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괴산고추축제	9.5-9.8 (4일간)	2001 (18회)	940	70	70	800	-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음성품바축제	5.22~5.26	2000 (20회)	740	70	70	600	-	문화 예술	유망	사단 법인	전체위탁
서산해미읍성축제	10.11~10.13	2000 (18회)	900	70	830	-	-	전통 역사	유망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강경젓갈추제	미정 (10월중)	1997 (22회)	845	70	35	690	50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부여서동연꽃축제	7.5~7.7 (3일간)	2003 (17회)	1,300	70	35	1,195	-	생태 자연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한산모시문화제	6.7~6.10 (4일간)	1989 (30회)	1,206	70	35	1,051	50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자체추진
완주와일드푸드축제	9.27~9.29	2011 (9회)	770	70	80	620	-	생태 자연	유망	축제 조직위	위탁
순창장류축제	10.19~10.21 (3일간)	2006 (14회)	650	70	80	500	-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고창모양성제	10.3~10.7 (5일간)	1972 (46회)	860	70	80	660	50	전통 역사	유망	사단 법인	부분위탁
영암왕인문화축제	4.4~7. (4일간)	1997 (22회)	1,070	70	-	1,000	-	문화 예술	유망	축제 조직위	부분위탁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 개최 년도	2019축제예산 (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영덕대게축제	3.21~3.24 (4일간)	1998 (22회)	740	70	70	600	-	지역 특산물	유망	축제 조직위	전체위탁
대가야체험축제	4.11~4.14 (4일간)	2005 (15회)	1,400	70	70	1,260	-	전통 역사	유망	사단 법인	전체위탁
밀양아리랑대축제	5.16~5.19. (4일간)	1957 (61회)	2,205	70	35	2,100	-	문화 예술	유망	재단 법인	전체위탁
포항국제불빛축제	5.31~6.2 (3일간)	2004 (16회)	880	70	70	740	-	주민 화합	유망	재단 법인	전체위탁

주 : 대구의 약령시 한방문화축제와 치맥페스티벌 예산의 경우는 2020년 계획안으로 재구성

■ 2019 충북지역축제 개최 내역

지역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개최년도	2019축제예산(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관광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청주 (9)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5.31~6.2 (3일간)	2003 (13회)	580		30	550		기타	지역축제	기타 법인	전체 위탁
	청원생명축제	9.27~10.6 (10일간)	2008 (11회)	2,500			2,500		지역 특산물	지역축제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젓가락 페스티벌	9.20~9.22 (3일간)	2015 (5회)	266			266		문화 예술		재단 법인	전체 위탁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5.17~5.19 (3일간)	2017 (3회)	390			280	110	문화 예술		임의 단체	전체 위탁
	청주읍성큰잔치	9.7~9.8 (2일간)	2009 (11회)	280			280		전통 역사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청주문화재야행	8.24~8.25 (2일간)	2016 (4회)	560	280	140	140		전통 역사		공공	전체 위탁
	청주공예비엔날레	10.8~11.17 (41일간)	1999 (10회)	5,500	900	500	3,100	1,000	문화 예술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가드닝 페스티벌	5.30.~6.2. (4일간)	2018 (2회)	95			95		문화 예술		공공 (시군구)	자체 추진
	한마음축제	미정	2018 (2회)	5			5		주민 화합		축제 조직위	자체 추진
충주 (4)	충주세계무술축제	8.30~9.6 (8일간)	1998 (20회)	1,200			1,200		문화 예술	지역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수안보온천제	4.12~4.14 (3일간)	1985 (34회)	100			100		생태 자연	지역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충주호벚꽃축제	4.5~4.7 (3일간)	2011 (8회)	15			15		생태 자연	지역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앙성온천축제	10월중 (3일간)	1998 (21회)	90			90		생태 자연	지역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제천 (5)	제천겨울벚꽃축제	1.18~2.6 (20일)	2019 (1회)	280			280		문화 예술	지역축제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제천얼음축제	1.25~1.31 (7일)	2019 (1회)	290			290		문화 예술	지역축제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청풍호 벚꽃축제	4.6~4.8 (3일간)	1997 (23회)	75			60	15	생태 자연	지역축제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제천국제음악영화제	8.8~8.13 (6일간)	2005 (15회)	2,880	500	400	1,780	200	문화 예술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창의124주년 제천의병제	10월중순 (미정)	1996 (24회)	90			90		전통 역사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지역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개 최년도	2019축제예산(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 관광 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 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보은 (4)	보은대추축제	10.11~10.20 (10일간)	2007 (13회)	920			920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속리산 신(神)축제	5.10.~12. (3일간)	1978 (42회)	177	5		172		문화 예술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오장환문학제	10월중 (2일간)	1996 (23회)	58			58		문화 예술	지역 축제	오장환문학제 추진 위원회	전체 위탁
	보은동학제	4월중 (3일간)	2003 (16회)	80		20	60		전통 역사	지역 축제	보은 동학제 추진 위원회	전체 위탁
옥천 (5)	옥천묘목축제	3.28~3.31 (4일간)	1999 (20회)	245			245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옥천참옻축제	4.26~4.28 (3일간)	2007 (12회)	0.3			0.3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지용제	5.9.~5.12 (4일간)	1988 (32회)	654		70	584		문화 예술	지역 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	7. 26~7.28 (3일간)	2007 (13회)	451			451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공공 (군)	부분 위탁
	중봉충렬제	10.11~10.13 (3일간)	1976 (44회)	30			30		문화 예술	지역 축제	사단 법인	자체 추진
영동 (4)	영동난계국악축제	10.3~10.6 (4일간)	1965 (52회)	950			950		전통 역사	지역 축제	재단 법인	자체 추진
	대한민국와인축제	10.3~10.6 (4일간)	2010 (10회)	455			455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재단 법인	자체 추진
	영동포도축제	8.29~9.1 (4일간)	2004 (15회)	860		30	830		지역 특산물	육성 등급	재단 법인	자체 추진
	영동곶감축제	2020.1월중	2003 (16회)	430			430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재단 법인	자체 추진
증평 (2)	증평들노래축제	6.15~6.16 (2일간)	2004 (15회)	115			115		전통 역사	지역 축제	사단 법인	부분 위탁
	증평인삼골축제	10.3~10.6 (4일간)	1992 (28회)	349		50	299		지역 특산물	육성 등급	사단 법인	부분 위탁
진천 (2)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24~5.26 (3일간)	2000 (19회)	220		30	190		전통 역사	지역 축제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생거진천 문화축제	10.3~10.6 (4일간)	1979 (40회)	410			410		주민 화합	지역 축제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지역	축제명	2019 개최 기간	최초개최년도	2019축제예산(백만원)					축제 종류	문화관광축제 여부	조직 형태	위탁운영 여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괴산 (6)	괴산고추축제	8.29~9.1 (4일간)	2001 (18회)	940	70	70	800		지역 특산물	유망 등급	축제 조직위	자체 추진
	괴산 사리면 백마권역겨울 놀이축제	1.4~1.27 (24일간)	2013 (6회)	28.6			20	8.6	생태 자연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자체 추진
	감물감자축제	6월(예정) (2일간)	2008 (8회)	29			20	9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자체 추진
	칠성둔율올갱이 축제	7월말(예정) (2일간)	2008 (10회)	16.5			10	6.5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자체 추진
	청천환경문화축제	8월초(예정) (2일간)	2005 (13회)	43			30	13	생태 자연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자체 추진
	연풍조령제 및 이화령산악 자전거 대회	10월중(예정) (2일간)	1982 (37회)	43			30	13	전통 역사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자체 추진
음성 (3)	음성품바축제	5.22.~5.26 (5일간)	2000 (20회)	740	70	70	600		문화 예술	유망 등급	사단 법인	전체 위탁
	설성문화제& 음성청결고추축제	8.29.~9.1 (4일간)	1982 (38회) 설성 1996 (24회) 고추	222 (설성) 190 (고추)			222 (설성) 190 (고추)		문화 예술 지역 특산물	지역축제	음성 문화원	전체 위탁
	음성인삼축제	9.26~9.29	2013 (7회)	355			355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임의 단체	전체 위탁
단양 (5)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	5.4~5.5 (2일간)	2016 (4회)	120			120		문화 예술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단양 소백산철쭉제	5.23~5.26 (4일간)	1983 (37회)	450			450		문화 예술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단양 온달문화축제	10.18~10.20(3일간)	1996 (23회)	550		50	500		전통 역사	육성 등급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단양마늘축제	7월중	2015 (5회)	150			150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단양아로니아축제	8월중	2013 (7회)	80			80		지역 특산물	지역 축제	축제 조직위	전체 위탁

2020 기본과제

관광동향 변화에 따른 도내 축제활성화 방향

발행인 | 정 초 시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충북연구원
전화 043-220-1107 팩스 043-220-1199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번지(문화동 15)
ISBN | 978-89-6455-497-5 9332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2020년도 기본과제 본보고서의 전문은
충북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를 참고바랍니다.

CRI CHUNGBUK RESEARCH INSTITUTE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TEL : 043) 220-1107 FAX : 043) 220-1199 www.cri.re.kr

비매품/무료
93320
9 788964 554975
ISBN 978-89-6455-497-5